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시민에게 전하여 건강한 가정, 행복한 시민,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 춘천성시화운동 매거진

1998. 9. 15 창간

vol.204

춘천 성시

2015

11



2015 춘천성시선교대회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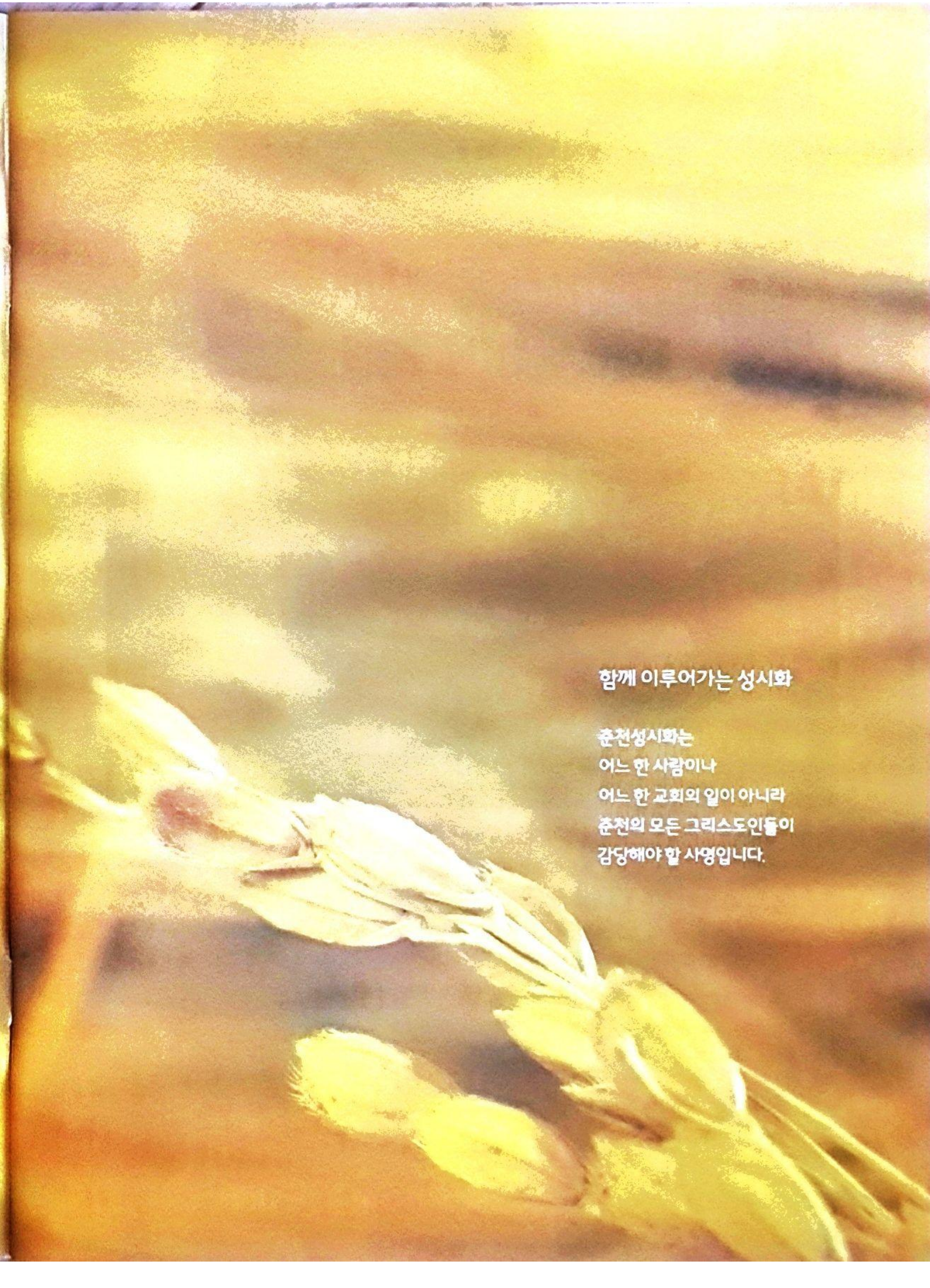
특집 회복될 추수감사절과 삼포세대

종교개혁시리 마르틴루터

교회탐방 하늘샘교회

인물 이범찬 장로





함께 이루어가는 성시화

춘천성시화는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교회의 일이 아니라
춘천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가을이 깊어 간다. 그러고 보니 깊어가는 가을은 작년에도 있었다.
산도 그 자리를 지키고, 강도 그 길을 따라 흐르고, 나무들도 작년, 그 작년, 더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다. 땅이 생겨났을 때부터 산이 되고 강이 되어 그 때부터 자리를 잡았으면
무수히도 시간이 흐르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보니 지금이라는 시간을 지날 때 갑자기 숙연해진다.

Editor's Letter

21세기 냉전 이후에 이른바 신자유주의라는 극단주의적 사고방식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듯하다. 새로운 이슈가 나올 때마다 어김없이 양극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은 이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용(中庸)을 운운하다가는 소위 어용(御用)이란 말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한 번도 국론 통일을 이뤄내지 못하는 작금의 현실을 보면 중용의 도가 필요한 때라 생각된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적절하고 균형을 갖춘 길을 찾는 것 말이다. 유대인들은 특히 극단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균형이 잡히면 보기에 아름답지만, 한쪽으로 치우치면 보기에 안 좋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너무 의로운 체도 하지 말고, 너무 악인인 체도 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절대 기준과 절대 정의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기억하고 그 앞에서 겸손해야 중용의 도를 지켜갈 수 있을 것이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불의한 전통과 관습에 포로 된 교회를 개혁하고자 마틴 루터에 의해 종교개혁이 시작한지 2017년이면 500년이 된다. 개혁된 교회가 500여년을 지나오면서 또 다시 개혁되어야 한다는 교회의 내적 외적 소리에 직면에 있다. 개혁이 거창하게 무슨 체계를 뒤집어엎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진정한 개혁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가는 것이다. 한국교회가 여러모로 병폐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은 대다수의 교회가 바로 서려고 몸부림치고 있음은 희망적이다. 쉽게 가려고 하지 않고 바르게 가려고 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훨씬 더 많다. 편히 살려고 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살려 하는 숨은 용사들이 아직도 많이 있음에 감사하자.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다. 물먹는 하마처럼 부어도 부어도 차지 않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다.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는 감사가 메마르고 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더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일까? 한번 자신을 뒤돌아보라. 소유가 적을 때 감사가 있었는가? 소유가 많을 때 감사가 있었는가? 요즘 시대에 감사가 사라지는 이유는 너무 많이 소유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2% 부족할 때 감사할 기회도 찾아온다. 진정한 감사는 버림으로, 내려놓음으로, 포기함으로 주어진다. 사람은 잃어버려 보아야, 내려놓아 보아야, 포기해 보아야 진정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건강을 잃어본 사람이 건강에 진정한 감사를 하게 된다. 11월 감사의 달에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며 진정한 감사의 우물을 파기를 바란다.

편집장 최영조

성시 창간 1998. 9. 15

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시민에게 전하여 건강한 가정, 행복한 시민,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춘천성시화운동 매거진

발행인
대표회장 김창환, 본부장 차덕수, 사무총장 이병철

편집장
최영조

편집위원
김영염, 김춘배, 성낙환, 이관형, 이영규, 이은정, 이병철, 조영춘, 최상도

디자인
로딘어스

발행처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시 금강로 120 강원 CBS 3층 춘천성시화운동본부
T 033.256.1260~1 F 033.257.1260 E holycc1972@hanmail.net

※ 정기구독 신청 및 광고문의는 춘천성시화운동본부로 연락주세요.

성시매거진은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친환경 종이를 사용합니다.

Contents

2015.11
vol.204

003 에디터 레터

006 캘린더
11월 소식을 한눈에

008 춘천성시선교대회 리뷰

011 춘천성시선교대회 메시지

014 춘천성시선교대회 소감문

016 특집-추수감사절
회복될 추수감사절과 삼포세대

019 예향/만평
뜻을 정하여 살라 /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

020 종교개혁시리즈
종교개혁가 마르틴루터

022 칼럼
제1회 춘천홀리바이크 평화통일대행진

024 다음세대
에벤에셀 춘천 기독교 연합 청소년 찬양축제

026 예수안에서 본 예술
Salvation

028 교회탐방
하늘샘교회

030 기관탐방
춘천희망 복지센터

033 시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034 인물
이범찬 장로

036 설교
그리스도인의 가치

038 건강이야기
미세먼지가 우리몸에 미치는 영향

040 예수의 미소
순서를 알면 주변이 깨끗해진다 2

042 영화이야기
이다

044 알려드립니다

046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소식

047 10월을 돌아보며

051 음악이야기
S. 라흐마니노프

052 후원자 명단

11
2015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 이달의 기도제목

·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에게 주를 경외함을 주시고 공평과 정의가 이 나라에 굳게 세워지게 하소서. 정치 경제 법 외교 문화 사회 교육 미디어 각 영역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중심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하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통일한국 선교한국 섬김한국으로 일어서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소서.

· 올바른 역사관이 세워지게 하시고, 청년들이 가정과 결혼의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올바른 인생의 가치관이 교육현장에서 가르쳐지게 하소서. 동성애가 이 땅에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시고 부끄러움의 마음을 갖게 하소서. 진리가 바르게 세워져서 비진리가 분별되는 사회가 되게 하소서.

· 조국교회에 성령의 기름부으심을 주사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세대가 교체되는 교회마다 신실한 주의 종들을 일으켜 세워 주셔서 신앙의 유산이 잘 전해지고 교회마다 성령의 위로로 든든히 서가게 하소서. 교회마다 목회자들마다 특별히 장로, 권사, 집사, 교회학교 교사, 찬양대등 평신도 지도자들이 모두 겸손히 법궤를 같이 멜 수 있는 협력의 어깨를 허락하여 주소서.

SUNDAY	MONDAY	TUESDAY
1	**2** [IVF] ~3일 신앙강좌(기도) 전재윤 목사 / 예수촌교회	**3** **통일기도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주향교회** 어린이전도협회 새소식반 강습회
8	**9** **[47차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저녁 7시 15분, 주향교회**	**10** **통일기도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주향교회** 어린이전도협회 새소식반 강습회
15	**16**	**17** **통일기도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주향교회** 어린이전도협회 새소식반 강습회
22	**23**	**24** **통일기도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주향교회** 어린이전도협회 새소식반 강습회
29 [GBT] 춘천지부 7시 설립12주년 감사예배 늘사랑교회	**30** **[통일광장기도회]** **저녁 8시, 석사교하천무대**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시편 105편 1~2절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4 [IVF] 캠퍼스사역위원회 춘천IVF회관 [CCC] 성심대 친구초청 예배 춘천성시매거진 편집회의	**5**	**6** [GBT] ~7일 전국 리트릿 대전지부	**7** [CCC] 홈커밍데이
11	**12**	**13**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조찬이사회	**14**
18	**19** [IVF] 숨콘서트 나눔감리교회 공간나눔 [JDM] 선교사파송식 JDM훈련센터. 7시30분 [예스컴] 학교 밖 청소년들의 모임 12시, 예스컴센터	**20** [ESF] 알곡감사예배 ESF회관 [CCC] 추수감사채플	**21** [IVF] 한림대 가족의 날 **[하늘소리찬양단]** **오후 4시, 하늘소리선교센터** [예스컴] 예스컴프레이즈 저녁 6시, 춘천중앙성결교회 **[강원CBS] 어린이합창단 공연** **오후 6시, 문화예술회관**
25	**26**	**27**	**28**

2015년 12월 18일(금) 11:00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정기총회
온누리교회

♥ 행사 일정 등록 문의 033) 256.1260 / holycc1972@hanmail.net

43주년 2015 춘천성시선교대회 한눈에 보기

올해로 43주년을 맞는 춘천성시화운동본부에서는 2015 춘천성시선교대회를 성시주간으로 정한 10월 첫 주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행2:17)라는 주제로 지난 주일인 4일부터 10일까지 한 주간 안디옥교회와 춘천의 여러 곳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성시선교대회는 집회와 전도요원훈련은 물론 문화, 체육, 영화, 음악, 선교, 통일, 그리고 다음세대들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되어서 모든 세대가 동참하고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되면서도, 성시화운동본부의 취지와 내부적 결속을 다지는 일도 놓치지 않고 진행되었다.







■ 10월4일(주일)부터 10월 6일(화)까지 3일간의 저녁집회에서는 광주평화교회 이동현목사님의 "거룩한 꿈", 예수세대운동의 다니엘 김선교사님의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순회복음선교단의 김용의선교사님의 "복음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시간마다 큰 은혜를 부어주셨고, 특히 다음세대들이 많이 참여하여 함께 찬양하고 무릎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 10월 5일(월) 오전 오후 두차례 전도요원훈련은 김철영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께서 강사로 성

시운동본부의 모토처럼 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시민에게 전하는 운동임을 잊지 않는 훈련과 실행이 있었다.





■ 10월 6일(화)에 열린성시포럼은 이병철사무총장의 사회로 "춘천성시화의 현재와 미래, 1972년 1996년 2015년 그리고 다음세대"라는 사암교회 최상도목사님의 발제가 있었고, 조영춘부본부장, 강원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이신 김영명장로님, 예스컴 길선희목사님, 어린이전도협회 김마태전도사님의 패널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포럼을 통해 광복70주년을 맞아 춘천성시화운동의 내부적 결속을 다지고, 무엇보다 다음세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는데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 되었다.

■ 10월 7일(수) "신은 죽지 않았다" 영화가 두 차례 상영이 되었다. 모두가 아니오 할 때 예라고 답하는 한 청년의 용기가 전해져서 모든 학생들이 신은 죽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며 외치게 하였는데, 그 용기가 전해지는 영화였다. 영상자료가 필요하신 교회는 연락주세요.(성시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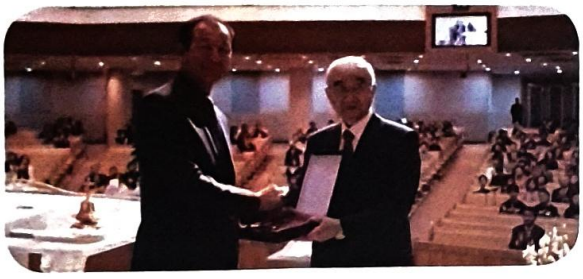
■ 10월 7일(수) 저녁 통일토크콘서트에서는 정요한 바이올리니스트와 김예나 피아니스트의 공연과 토크가 있었는데, 전 김정일악단장이었던 정요한 바이올리니스트는 어렸을 때 장로이셨던 할아버지가 머리에 손얹고 기도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위해 탈북하였고, 김예나 피아니스트는 순교하신 목사님의 자제였다. 두 분은 한국에서 만나 결혼을 하였고, 두 분의 하모니로 아주 멋진 찬양과 공연, 또 토크의 시간이 되었다.



■ 10월 8일(목) 축구와 족구대회에서는 축구는 춘천시내 6개팀, 족구는 4개팀이 참여했는데, 축구는 춘천기독교연합회팀, 족구는 목회자팀이 우승을 했다.



■ 10월 9일(금) 어린이 꽃잔치가 어린이전도협회 주관으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는데, 1200여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했고, 800여명의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귀한 잔치가 되었다. 어린이들은 또 꽃잔치를 하고 싶다고 말을 할 정도로 귀한 시간이었고, 훈련된 교사들의 헌신이 무엇보다 빛나는 시간이었다.





■ 10월 9일(금) 블레싱춘천에서는 소양성결교회 이원호목사님께서 "아버지를 닮아야 자식입니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다. 이날은 2부 순서로 제1회 춘천성시시민상 시상식이 있었다. 제1회 춘천성시시민상에서는 공로상에 순복음춘천교회 조남진장로님, 석사감리교회 이용규장로님, 통일상에는 거성교회 김수복목사님, 선교상에는 베드로선교센타 조은제, 기정희 선교사 부부, 교사상에는 순복음춘천교회 엄근혜교사, 사회복지상에는 혜민사랑의 집이 수상을 했다.





■ 10월 10일(토) 제1회 춘천홀리바이크 평화통일대행진은 춘천성시 기관장모임 주관으로 성기문법원장께서 대회장을, 안동규 한림대교수께서 준비위원장을 맡아 수고해주셨다. 이번 대행진은 광복70주년을 맞이하며 진정한 광복인 남북평화통일을 염원하며, 두 개의 바퀴가 하나되어 달려가는 자전거처럼 민족이 하나되어 나가길 소원하는 자전거 대행진이다. 송암동 물레길 카누 선착장에서부터 서면 에니메이션 박물관까지 라이딩을 했다. 재미있는 사진도 찍어 올려 시상도 하고, 여러 단체의 후원과 회비를 모아 탈북자 다음세대 단체인 유니씨드와 두드림 아카데미에 후원금을 전달하는 행사도 가졌다. 토요일에 새벽에 비가 많이 왔는데 라이딩 하는 시간에는 비가 멈추고 해가 뜨는 놀라운 일도 있었다.

이은정 기자 / graceyh02@hanmail.net

춘천성시선교대회 메시지 1



강사 이동현 목사
광주평화교회

"거룩한 꿈"(렘4:1~4)

이스라엘에서 기념교회 벽에 이런 글씨가 있다. 과거를 기억하라! 현재를 생각하라! 미래를 기대하라! 누구에게나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돌멩이 하나도 사랑하고 풀뿌리 하나를 사랑하자는 마음으로 벌인 성시운동 40여년의 전통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가 하면 우리 형편과 처지가 어찌되었든 현재 있는 자리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

본문을 통해 영광스런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이 무너져 심판이 온 이유는 살펴보면,

첫째, 도시에 있는 믿음의 여인들의 영적타락, 도덕성이 타락하면 도시의 심판이 온다. (렘4:30) 도시의 믿음의 여인들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순결해야 한다.

둘째, 지도자의 타락과 음란으로 도시의 심판이 온다고 쓰여 있다. 지도자는 지도자이기에 메고 가야 할 멍에가 있다. 헌신과 희생의 멍에이다. 이것을 꺽어 버리면 안 된다. 또한 지도자들이 자신을 음란에서 지켜내야 한다. (렘5:3~6)

셋째, 다음세대 청소년 청년들이 물려받을 거룩한 유산이 없는 것이 도시의 심판을 가져온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전하며 용기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 (렘5:24)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임하신다. 우리는 도시를 살리는 그루터기가 되어야 한다. 잘못된 부분을 고쳐야 나가야 한다. (렘5:10, 18절)

도시를 복 받게 하는 비결은,

첫째,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렘5:1)하심처럼, 이 도시의 나 한 사람이 남은 자, 위로 자, 격려 자,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

둘째, 축복의 물꼬를 트는 자로 살아야 한다. 도시의 평안을 구하며 두 손을 들어 이 도시를 축복해야 한다. 이 땅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내자.

춘천성시선교대회 메시지 2

"여호와를 두려워 하라"(신4:1~14, 24))



강사 **다니엘김 선교사**
(JGM)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오는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일꾼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자원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잊은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세상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다.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리로 나아와야 한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그림과 교회 안에서 말하는 성공이 흡사하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란 것으로 포장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은 하나님께 축복받았다는 증명이고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세상이 우리 안에 깊이 프로그램 해놓았다. 하나님도 이렇게 성공하는 것을 좋아 하실거야 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아벨의 제사가 아닌 가인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

축복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경외함이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진짜 축복은 40년간의 광야생활을 하면서 갖게 된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어려움의 순간에 자신을 계시하신 것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계명을 소유한 축복인 것이다.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축복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님은 들어오시자마자 내 삶이 지탱하는 모든 기반들을 흔드신다. 왜냐하면 왕 되신 주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왕궁을 만드시기 때문이다. 그 과정은 쉽지 않으나 다 끝나면 알게 된다. 임마누엘하시는 주님 한 분만을 구하라.

춘천성시선교대회 메시지 3

"복음의 능력"(고후5:13~17)



강사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단)

오직 십자가 복음 외친 지 30여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복음을 외치고 오는 동안 나는 이런 말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뜨거웠는데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지금은 식었다. 이런 이야기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가 나의 한계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가 이런 줄 뻔히 아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더 미치지 않고, 어떻게 더! 더! 더! 전부가 되지 않고 살 수 있는지 저는 잘 몰랐습니다.

꼭 그렇게 예수 믿을 필요가 있느냐? 꼭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 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 된 것이 한이었는데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는 극단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는 압니다. 이제는 더욱 외쳐야 할 때가 됐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적당하게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것을 균형이다, 세련된 거다, 전부 그런 식으로 사느냐?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에게, 이제야 비로서 나이 이만큼 먹고 더 궁금할 게 별로 없어 보이는 이 때에 더욱 외칠 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거 다 그만 두고 나 모자라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거 많이 있지만 감히 말하고 싶은 것 여러분이 나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예수에 홀랑 미쳐서 예수면 충분하고 예수 사랑 십자가 사랑이면 더 바랄 것이 없는 예수 사랑 십자가 사랑이 이 민족 교회가 붙들 마지막 축복이고 능력이며 영광입니다. 지구촌 곳곳에 흩어져 지금도 그렇게 어려워 보이고 힘든 길 걸어가는 사랑하는 동지들에게 지금도 말하고 싶은 한 마디가 있습니다. 우리 후회 없다! 우리 결코 두렵지 않다! 한국교회 희망있다! 온 열방은 소망 있다! 그건 바로 예수사랑 십자가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 피 값으로 산 삶, 예수 피 값만큼 살다가 주님 만납시다! 주님 지금 막 오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도 주님에게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 생명 걸고 이제는 선교사이하의 삶은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복음의 가치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목숨 건 순종으로 우리 함께 지금까지 못 살아 본 믿음의 삶을 지금 오늘 이 밤부터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이은정 기자 / graceyh02@hanmail.net

춘천성시선교대회를 참여하고 나서 ...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천국잔치 축제인 "제43주년 2015 춘천성시선교대회"가 10월 첫 주인 성시주간에 있었습니다. 춘천은 남북한 교류의 중심도시이면서도 통일을 위한 전도의 전략적 요충지이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축복하는 선교대회인 만큼 뜨거운 집회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중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인 어린이 꽃 잔치가 10월 9일(금)에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어린이 꽃잔치는 매년 어린이전도협회가 주관하는 행사인데, 올해에는 성시주간을 맞추어 개최되었습니다. 어린이 꽃잔치는 모든 어린이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예쁜 시계 선물도 준비하고 초청하였는데, 참 많은 아이들(1200여명)이 다녀갔습니다.

놀라운 이야기, 즐거운 한마당, 춘천 어린이 합창단의 공연과 복화술, 비보이 공연팀의 공연 등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잔치가 오픈되기 전과 진행되는 동안 속속들이 들어오는 친구들을 맞아 곳곳에 이미 마련된 자리에서 글 없는 책 대신 아이들이 갖고 싶어 하는 휴대폰 그림을 넣어 복음의 메시지를 담은 작은 그림책으로 주위 집중하게 한 후 복음을 제시하였습니다. 제게서 구원상담이 이뤄진 아이들은 거의 80%가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들 중에도 미취학 어린이임에도 복음을 듣기 힘들어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안 예뻐하신다며 예수님도 싫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 다섯 명씩 그룹으로 복음을 들려준 후 영접 기도까지 시키기도 하였지만, 이 아이가 계속 마음에 걸려 1:1로 다시금 복음을 제시했을 때 어린아이 입을 통해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죽으심과 다시 사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마음에 모신다는 기도까지 작은 입술을 통해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고, 예수님을 사랑하겠노라 하며 마음 문을 여는 아이의 모습이 참으로 사랑스러웠습니다. 주님께서도 기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마쳐지고 돌아가는 부모님들과 아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본 그 친구는 오래도록 나와 눈을 마주쳐주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춘천의 어린 영혼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 지옥 가는 영혼이 없도록 잃어진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날까지 어린이전도를 위해 힘써야겠다는 뭉클함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일찍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아이들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있는 선생님들을 모아 훈련시키고 현장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증거 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어린

이전도협회 춘천지부를 맡고 있는 김 마태 전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기도로, 훈련으로 동역자들을 모으시고 춘천 곳곳의 초등학교를 다니며 오늘도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전도사님의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복음을 증거하며 받은 은혜를 이 땅의 어린영혼들을 책임지고 나아갈 선생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유치부교사 박경희 (순복음춘천교회)

춘천의 성시화를 위해 기도하는 한사람으로 춘천성시선교대회의 현장에 참여해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주일저녁부터 시작된 집회 중 둘째날 다니엘김 선교사님의 '여호와를 두려워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던 날 저는 많은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씀 시작부터 무언가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현재 교회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소멸되고 있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함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아직도 우리 안에 많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보게되어지며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분이셨기에 다음세대들을 향한 말씀가운데 지금 청소년에게 경배와 찬양보다 먼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씀 하셨을때 나도 자녀를 키우는 엄마로써 우리 아이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게 해주고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가르치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해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의 춘천성시선교대회의 모든 프로그램 모두 너무 좋았지만 그중 금요일에 있었던 어린이 꽃잔치가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영접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고 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공연으로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가 너무 좋았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춘천의 모든 성도가 다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에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인 성도 한사람 한사람을 통해 춘천의 성시화를 이루어 가실거라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기대하며 춘천의 거룩한 도시, 성시화의 도시를 기대합니다.

유초등부교사 심현미 집사 (주향교회)

회복될 추수감사절과 삼포세대





조국 교회의 추수감사절은 1904년 9월 13일 조선예수교장로회 제4차 공의회에서 서경조 장로가 우리나라에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어 구원을 받게 된 자들이 많게 된 것을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자는 제의를 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그 후 1914년 각 교파 선교부의 회의를 거쳐 미국인 선교사가 처음으로 조선에 입국한 날을 기념한 매년 11월 셋째 주일 후 3일을 감사일로 정하였다가 수요일을 주일로 변경하여 매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켜 오늘에 이른다.

"전국 교회에서 1년에 1차씩 감사하는 날을 작정하는 문제에 대하여 서경조 장로가 연설하기를 우리나라 교회가 전에 비하여 왕성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즉 감사일을 정하고 1년에 일차씩 기쁘게 즐기며 감사하는 것이 심히 합당하다 말하고 나서 양전백, 김흥경, 방기창, 한석보 등이 계속 설명하다."(죠선 예수교장로회 공의회 제4회 회의록. 233쪽)

"감사일은 선교사 최초 도선일渡鮮日- 조선에 도착한 날(양력 11월 제 셋째 주일 후 삼일로 정하고)"(예수교쟝로회 죠션 총회 뎨삼회 회록. 1914. 29쪽)

조국 교회의 추수 감사절은 참으로 어여쁘다. 추수감사절을 영이요 생명으로 이해했으니 말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아직 넉 달이 남아 있고 그 뒤에 수확할 때가 이른다, 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들을 보라. 그것들이 이미 희게 되어 수확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삯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것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함께 기뻐하려 함이라.(요 4:34-36)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로다.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느니라, 하시니라.(요 6:26-27)

더욱이 서경조가 감사일을 정하자고 주창했을 때 그 은혜를 흉년으로 고생하는 지역을 위하여 교회는 구제헌금을 결의한다. 아, 아름답다.

"朝鮮語를 用하난 會에셔난 凶年을 因하야 流離하게 된 金浦 通津 白川 延安等地에 잇난 敎會를 爲하야 各敎會가 捐補하기로 決定하고"(대한예수교장로회 독노회록. 제4회 회의록. 18쪽)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기록된바, 그가 널리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제공하시는 분께서 이제 너희 양식으로 빵도 제공하시고 너희가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하시며 너희의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시리니) (고후 9:8-10)

작금 교회가 회복해야 할 추수감사절이 이런 추수감사절이 아닌가 한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삼포세대(연애 · 결혼 · 출산이라는 전통적인 가족 구성에 필요한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를 지칭하는 신조어)를 사는 젊은이들이 눈에 밟힌다. 그러기에 권면하자면 돈 없으면 남의 노예(?)가 되어 중노동 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일이고, 또한 없다고 좌절하여 자포자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지, 무엇이라도 닥치는 대로 일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여겨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당하는 것을 다 배웠노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2-13) 라는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다.

지금 세상은 돈이 아주 많은 상위 몇 프로의 사람들을 빼놓고는 모두 육체노동을 해야지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시대에 도래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 비지니아텍 공대 나온 IT 엔지니어와 만나 얘기한 적이 있다. 지금 그래도 꽤 규모가 컸던 IT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한 지 10년이 되어 가는데 일의 양이 많아서 너무 힘이 든다고 한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전에는 자기가 일하는 부서에 직원이 40명이었단다. 그런데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고 로봇이 일을 다 해주고 있어서 직원들이 많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 현재 자신이 일하는 부서에 자신과 오랜 동료로 일했던 친구 한 명 빼고는 모두 직장에서

내 보내겠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40명이 하던 일을 두 명이 하려니 늘 야근을 하고 그야말로 중노동 중이라며 하소연을 하는 것이다. 그래도 실력이 대단하셨나 보네요. 그 많은 직원 중 살아남으셨으니까요? 하고 물어보니, 이 사람 얘기가 흥미롭다. 회사에서 나간 직원 중에는 유명 아이비리그를 나온 자신보다 더 실력이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들은 내보내고 자신과 친구만 남은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다른 직원들보다 평소 청소나 잡일 등을 제일 많이 해서란다. 내가 농담 아니냐고 하니 이 사람은 진지하게 실제로 그렇다고 말을 하는데 의아했다. 고급인력들은 머리 쓰는 일만 하려고 하고 자신들은 머리가 썩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컴퓨터나 고장이 나면 수리하고 물건 들여오고 나가고 하는 일부터 청소까지 회사에서 필요한 잡다한 일은 모두 다했었기에 살아남았다는 것이다. 고급인력들이 하던 일들도 이젠 컴퓨터와 로봇이 대신하는 시대이다. 이런 시대에 매일 치킨 천 마리를 튀기는 일을 하는 중노동이라도 하는 직장이 있는 것을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

내가 옛날에 누구였는데 하는 생각, 내가 어떤 대학을 나온 사람인데 하는 생각,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며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것에 사로잡혀있다가는 언젠가는 자존심 때문에 3D 업종의 일이나 서비스 업종에 일은 못 하겠고, 과거의 허황한 꿈을 꾸며 살아왔던 자기 모습에 도취해 마땅한 직장은 없고 육체 노동일은 하기 싫고 그냥저냥 자신의 신세 한탄하면서 놀고 있다가는 앞으로 쌀 걱정을 하고 살아야 하는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른다. 지금은 어떤 일이냐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니다. 닥치는 대로 일자리만 주면 일해야 하는 시대이다. 집에 모아놓은 재산 많이 없는 서민이라면 당장에라도 허황한 꿈에서 벗어나 막노동이라도 할 각오를 해야 한다. 나는 변한 게 없는데 세상이 변해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먹고사는 일이 더더욱 악화할 뿐이지 좋아질 일은 전혀 없을 듯하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해? 라는 나 자신의 그릇된 사고와 전쟁을 벌여야 한다. 이제는 그 싸움에서 이기고 현실을 냉정히 보고 받아들이기로 작정하라. 그래도 비관적이지 않은 것이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신 구원의 복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영규 기자 / abba-father@hanmail.net

뜻을 정하여 살라

뜻을 정해 살 때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신다.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기로 뜻을 정했을 때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3명의 동역자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었다. 소년 다윗도 나라를 위해서 골리앗과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질투에 눈이 먼 사울 왕이 다윗을 괴롭힌다.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왕자 요나단을 붙여주셨다. 사울 왕이 이 잡듯이 수색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험한 세월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요나단을 옆에 붙여주신다. 그리고 그에게 위로하게 하신다. 왕자인 요나단이 '다음 왕이 될 사람은 바로 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고 반드시 너를 세우신다.' 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사람을 붙여주신다. 우리 동양에도 '덕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따르는 사람이 있다'고 말한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 옆에 보디발 장군을 두시고, 누명을 쓴 요셉에게 감옥의 간수장을 붙여주신다. 그러므로 뜻을 정해 사는 인생이 아름답다.

최상도 기자 / saam21@hanmail.net



개 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

성경은 돈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임을 인정했고(전 10:19)

또 이 세상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살전 4:11-12) 경제적 책임이 있는 사람이 돈을 벌지 않는 것은 경건한 것이 아니라 무책임한 행동이다. 그 결과로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악한 자가 된다(딤전 5:8) 하지만 부정하게 번 돈을 좋은 일에 쓴다고 해서 돈의 가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노력해서 돈을 벌어서 그것을 좋은 일에 사용해야만 돈의 가치가 인정된다.

이관형 기자 / artpam@hanmail.net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

비범한 아이

1483년 독일의 작은 도시 아이슬레벤 (Eisleben)에서 한 비범한 아이가 태어난다. 장차 유럽대륙과 중세 기독교세계를 새롭게 변화시킬 사람, 마르틴 루터였다.



루터는 신학을 공부하고 1507년에 천주교회의 사제가 되었고, 신학 박사가 되어 성서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구원문제에 확실한 증거를 갖고 싶어서 어거스틴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수도원 생활을 하였다. 하지만 온전한 확신에 이르지 못하고 영적인 방랑자가 된다.

그러던 중 그는 신약성서 전반을 새롭게 연구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구원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었다. 그것은 인간의 행위나 노력, 선행으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오직 예수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단순하고도 확고한 성경의 입장을 발견했다.

천주교회의 부패와 타락

하지만 16세기경 천주교회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교황은 지상의 예수님을 대리하는 존재로서 죄를 사하고 벌하는 권세를 지녔다. 천주교회는 교황권과 사제주의 전통을 고집하여 성경조차 평신도가 소유할 수 없게 하였다. 평신도는 그 내용도 알 수 없었기에 그 해석에서 많은 오류가 나타났다. 설상가상으로 교황청에서는 베드로대성당 공사의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소위 면죄부를 판매하고 있었다. 이 면죄부는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사제 앞에 나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그 죄에 합당한 돈을 내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면죄부 하나로 죄를 사함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데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면죄부 대리 판매자인 도미니크회의 수도사 테첼은 "단순히 면죄부를 산 사람만의 죄가 아니라 그의 죽은 부모, 친지의 영혼조차 면죄부의 돈이 금고에 떨어져 짤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지옥으로부터 튀어 나온다"는 식의 과대선전을 하였다. 테첼과 같은 면죄부 판매원들은 "면죄부 헌금을 내는 순간 그만한 교회의 영적인 은혜를 얻기 때문에 자기 죄를 회개할 필요조차 없다"는 식으로 설교를 하였다. 이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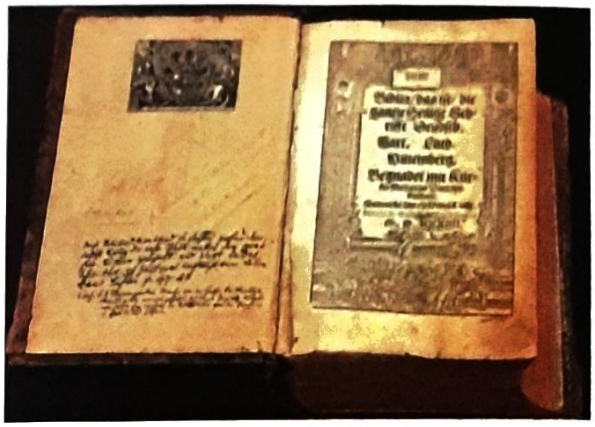
은 당시의 최고권력 기관인 교황청에서 행하는 일이어서 어느 누구도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만약 문제를 제기하면 이단으로 몰려 파문당하고 죽음에 이르기에 충분하였다.

95개조의 반박문

루터는 신앙양심과 불의 앞에서 고민하다 드디어 1517년 10월 31에 비텐베르크 성당의 정문에 95개조에 달하는 항의문을 붙이게 된다. 반박문이라고도 불리는 이 글은 면죄부 판매의 부당성, 고해성사의 문제점을 포함하여 교황과 교황청에 대한 오류를 조목 조목 반박하였다. 루터는 95개조에서 회개를 강조하였다. 루터는 신약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회개한 신자는 십자가를 멀리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다. 또한 구원을 돈으로 사고 파는 값싼 은혜가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수난과 죽음을 통한 값비싼 은혜를 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루터는 면죄부 판매를 계속하는 이상 교황의 권위도 부정함으로써 천주교회를 유지시키던 기존 질서에 대해 강하게 투쟁하였다. 그의 혁명사상은 14일 안에 95개조 항의문이 독일 전역에 퍼진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독일 국민들의 절대적인 찬성을 받았다. 천주교회에서는 루터가 매우 위험한 인물임을 알고는 아우구스부르크에 소환하여 심문하였고, 보름스 국회로 불러들여 루터의 책들이 불온서적임을 시인하라고 강요하였다. 하지만 루터는 자신의 주장 철회를 거부한다. 마침내 루터는 교황과 천주교회로부터 완전히 돌아섰으며, 독일의 시민과 귀족들에게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의 신학 사상은 다섯 가지 솔라(Five Solas)로 요약된다.

다섯 가지 솔라(Five Solas)



첫째, 오직 성경으로(Sola Scriptura): 진리냐 아니냐의 최종 권위는 오직 성서에 있다는 뜻이다.

둘째, 오직 그리스도(Solus Christus):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이루신 예수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뿐이다.

셋째, 오직 은혜(Sola Gratia): 구원에 필요한 유일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

넷째, 오직 믿음(Sola Fide):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 받을 뿐이다.

다섯째, 오직 주님께 영광(Soli Deo Gloria):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일이시기에 사람이 참여하는 부분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종교개혁의 의미가 오늘날의 시대에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다음 호에서 살펴보자.

최상도 기자 / saam21@hanmail.net

제1회 춘천 홀리바이크 평화통일대행진을 은혜가운데 마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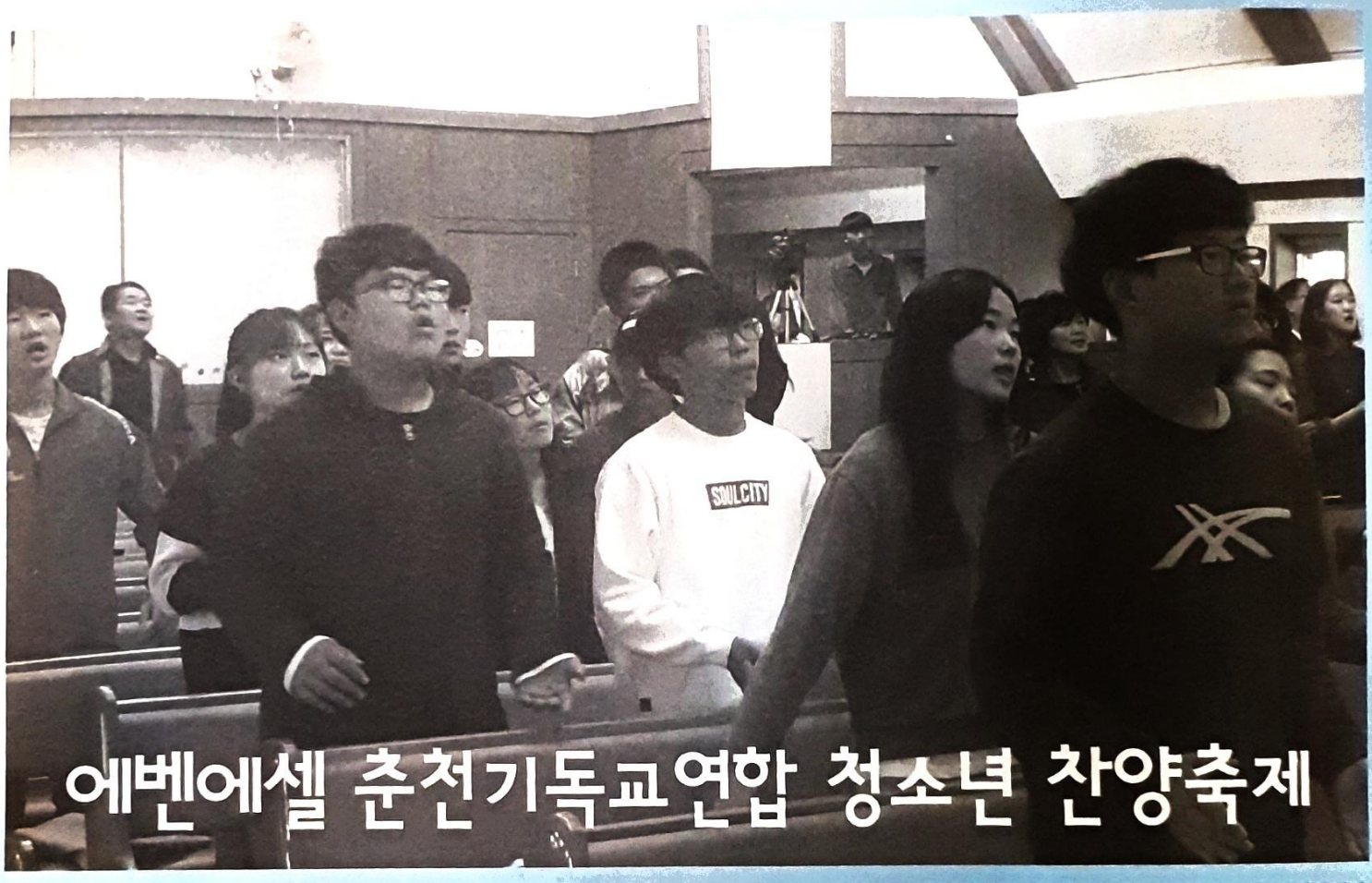
우두둑!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에 잠을 깨었다. 새벽 6시. 창밖에는 빗줄기가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다. 아뿔사 이를 어찌할꼬. 오늘은 춘천 홀리바이크 평화통일 대행진이 있는 날이다. 비가 오면 위험해서 대회 진행이 어렵다. 며칠 전부터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어 많은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합심하여 왔지만, 막상 비가 내리니 마음이 흔들린다. 카톡방을 통해 시시각각 상황을 살피며, 이병철, 조영춘 목사님, 안동규, 이선우 한림대 교수 등 준비위원들과 긴급한 대화를 나누었다. 믿음의 시험이다. 초대한 기관장들은 어떻게 하고, 행사진행을 맡은 두드림아카데미와 유니씨드 대학생들에게는 무어라고 해야 하나. 논의 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강행하기로 하였다.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참여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경륜가운데 선택된 분들이다.

춘천 홀리바이크 평화통일대행진은 2015 춘천성시선교대회 마지막 날인 10월 10일(토) 이렇게 시작되었다. 이 날은 자전거 바퀴와 같이 동그라미가 2개 있는 특이한 날이기도 하다. 춘천 성시화운동본부가 주관하고 춘천 홀리바이크가 주최한 이 행사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해인 2015년에 유일한 분단 도(道)에 자리 잡은 춘천에서, 두 개의 바퀴가 하나가 되어 달려가는 자전거처럼 평화롭게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한마음으로 자전거를 달리는 대행진이다.

다행이 빗줄기는 점차 약화되고 있었다. 8시 30분 석사동에 있는 집에서 자전거를 타고 출발할 때는 완전히 비가 멎어 있었다. 할렐루야! 송암레포츠타운에 도착하니 벌써 많은 분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고, 등록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미 비는 그쳤고, 개막식을 시작한 9시경에는 구름이 걷히고 해가 빛나고 있었다. 참가를 포기하였던 김진태 국회의원도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하나님의 주신 기적처럼 여겨졌다. 개회식을 마치고 모두 힘차게 자전거의 페달을 밟으면서 출발하였다. 목적지인 애니메이션 박물관 잔디밭에 도착한 후에야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마침 비 때문에 다른 행사가 취소되어 비어있는 야외 공연장 건물 안으로 들어가 비를 피하면서 폐막식 행사를 진행하였다. 순복음춘천교회 장로님들의 색소폰 공연, 중고등부 학생들의 특별 찬양등 은혜로운 순서가 진행되었다. 북한이탈주민단체에 후원금을 전달하고 각종 시상을 마친 후, 합심하여 춘천성시화와 평화통일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다. 계획보다는 축소된 행사였지만, 한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체험한 축복된 행사였다.

성시 기관장모임은 춘천의 각 기관 및 단체의 책임을 맡은 분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되어, 매월 한 차례 춘천의 성시화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조찬모임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춘천은 자전거의 도시이다. 자전거는 건강에도 좋고, 에너지 절약에도 도움이 되며, 공해도 줄일 수 있는 1석 3조의 좋은 운동이다. 춘천에 있는 크리스챤들이 이러한 자전거의 장점을 이용하여 자전거타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면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성시 기관장모임에서 자전거 타기를 솔선수범하기로 하고, 자전거를 탈 줄 아는 분들은 조찬모임에 자전거를 타고 와서 함께 라이딩을 한다. 이 모임이 춘천 홀리바이크이다. 춘천 홀리바이크는 앞으로 시민들과 함께 자전거 타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파하고,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도울 뿐만 아니라 북한 이탈주민 후원사업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범죄 없는 건강하고 웃음 짓는 행복한 춘천을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한다.

글 / 성기문장로(춘천법원장)



에벤에셀 춘천기독교연합 청소년 찬양축제

※ (10월24일, 주향교회)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선포된 말씀을 정리합니다.

목표(goal)과 목적(purpose) 요한복음 11장 17절~44절

윤성종 목사(기독교북한선교회, 주니어 쥬빌리)

본인은 중3때 은혜를 받고 성경을 읽는 것을 좋아했다. 공부를 하기 전에도 늘 성경을 읽었는데 도리어 성적이 올라갔다. 그런데 고2부터 고3까지는 성적이 떨어졌다. 그 당시 내 마음에 든 생각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구나 였다. 나는 달라진 거 없는 거 같은데 왜 성적이 떨어질까 하며 고민을 많이 했다. 일류대 입학이 내 목적이었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자포자기했다. 그 때 대학가서 놀자는 친구들의 말이 위로가 되었다. 본문에서와 같이 예수님은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친구였다. 나사로가 죽어서 슬퍼하는 그들을 보고 예수님은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그런 친구이셨다. 예수님은 공감을 해주시는 좋은 친구이다. 예수님은 내 안에서 울어주신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는 친구이시다.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일류대학을 포기하고 입학한 대학생활은 단순히 대학입학이 목표였기에 대학을 입학하고 나서는 노는 일에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 문제는 목표(goal)와 목적(purpose)이란 기본적인 이해가 없었기 때문이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중간과정의 목표가 있는 것이다. 목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적이 중요한 것이다. 목적에 따라 목표가 달라진다. 마치 축구할 때 승리라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전술을 달리 하듯이, 목적이 분명하면 목표를 전략적으로 세울 수 있게 된다.

예수님은 나사로 죽음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셨기에,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견디셨고 결국 목적을 이루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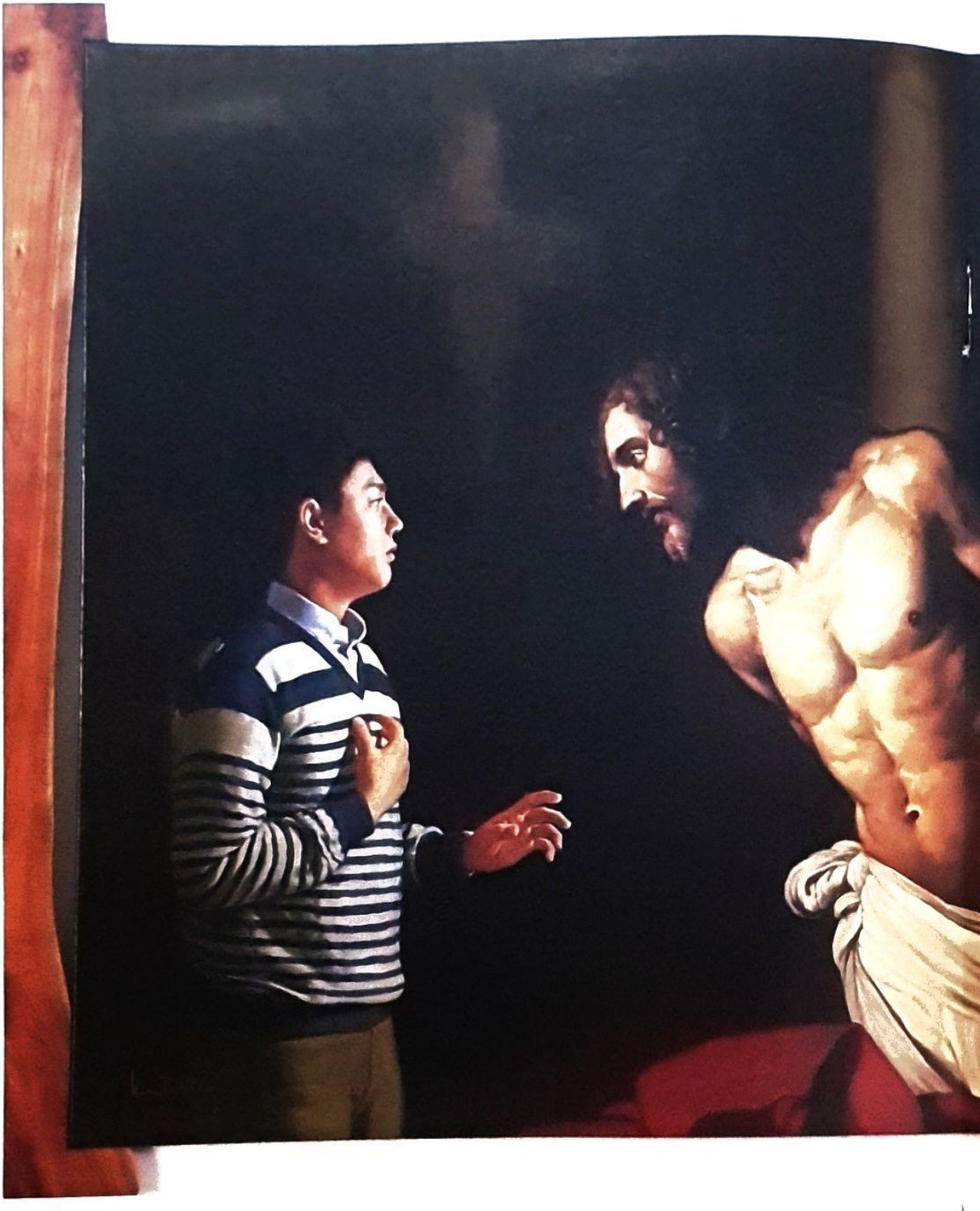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목적)이다. 분명한 목적이란 물음에 대답이 있으면 우리 인생이 수월해진다. 공부의 목적이 분명하면 대학선택보다 학과를 선택한다.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 목표가 선명해진다. 제빵사가 되려면 대학을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빵을 잘 만들면 된다. 내 삶의 목적에 맞게 진로를 결정하면 된다. 어느 대학이 목표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목표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살아야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모르면 하나님께 여쭈어 보라. 그러나 분명한 목적이 있어도 잘못된 목적이라면 인생이 잘못된 방법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자주 질문을 해야 한다. 목적을 자꾸 확인해봐야 한다. 놀기만 하던 대학생활 중 한 후배가 찾아와서 "학교는 왜 다녀"라는 질문을 했다. 이 질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다. 그 후배한테 놀려고 학교 다니는데 라고 답할 수 없었다. 그 후 화장실 가서 많이 울었다. 잘못된 목적을 가지면 인생은 망가진다. 도전을 받은 후 일본 선교훈련을 다녀온 후 나의 인생은 바뀌었다.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마음 아파하며 무덤 앞에서 세 가지 명령을 하셨다. ① 무덤의 돌을 치워라! ② 나사로야 나오너라! ③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셨다.

예수님이 소리치심 같이 우리는 외쳐야 한다. 내 삶의 장애물, 무덤 앞의 돌과 같은 장애물을 LET IT GO!라고 외쳐야 한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 삶을 막고 있는 것을 LET IT GO! 해야 한다. 무덤의 돌을 치우고, 나오라고 소리치며,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한다. 목적이 없는 삶은 내 인생의 돌이다. 나를 묶고 있는 것들을 벗어 버려야 한다. 말초적인 죄를 끊어 내어야 목표가 보이게 되고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하시는 순간 분명한 목적을 내 안의 회로에 심어 놓으셨다.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신다.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라 그리하면 인생의 무게가 가벼워진다. 하나님께 질문을 하라.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묶고 있는 죄의 습관을 끊어 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물으라! 하나님은 위로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분이시다.

이은정 기자 / graceyh02@hanmail.net



Salvation 작가 김복동

2015-12 / 260×149.5cm / oil on canvas

예수그리스도의 태형(Caravaggio/1607/ Oil on canvas/134.5×175.5cm) 같은 주제를 두 번 그린 카라바조는 처음 작품보다 두 번째 그린 이 작품에서 예수의 신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얼굴에 신비한 광채를 강조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육신의 아픔과 죽음이 영의 세계를 이길 수 없음을 읽을 수 있다. 그리스도는 인류를 위해 모두의 십자가를 대신 지셨으나, 우리는 각자의 십자가를 지는 것조차 버겁다. 예수의 빛나는 얼굴을 마주할 자격이 없는



그래서 빌라도는 군중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바라바를 풀어 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채찍질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마가복음 15장 15절)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분을 바라볼 때, 우리를 의롭다 하여주신 '칭의'가 비로소 그 의미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구원시리즈 작업中 오브제로 사용된 나무들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형태의 자연미, 하나님의 창조성과 역사적 진실성 그리고 목수와도 연관 되지만 무엇보다 세상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달리신 나무 십자가를 상징한다.

이관형 기자 / artpam@hanmail.net

21세기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행복과 믿음을 주기 위해 준비된 하늘샘교회



▲ 한재웅 담임목사와 김혜리 사모

"하늘샘교회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며, 말씀을 체험하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훈련하고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룬다." 하늘샘교회의 비전선언문이다.

이 교회가 춘천에 세워진 지는 일 년 전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개척의 주인이시고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갖고 계시기에 서울의 하늘샘교회는 그 비전을 이루시고자 지역의 개발과 함께 교회당을 새로 개축을 하여 영적 지경을 넓히고자 하였다. 또한 한재웅목사는 주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인해 이전 터를 놓고 준비하고 있던 중 지인의 권면과 마침 춘천에 있던 아들의 직장으로 집을 구하고 있었기에 서울에서 강권적으로 춘천에 오게 된다.

하늘샘교회당에 들어서면 원탁으로 꾸며진 회중석을 볼 수가 있다. 작은 교회당의 공간 활용의 적절성(교회당이 90평이다. 예배 공간과 사택 공간, 교육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교육공간은 아직 필요치 않아 누군가가 쓰기를 바라고 있다.)과 초신자가 처음 와 본 교회에 대한 거리낌에서 가까워지게 하도록,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풀어 놓고 그 실제의 삶을 사는 식사 교제와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셀 모임을 위해 원탁들을 두었다고 한다. 온 가족이 함께 원탁에 둘러앉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듣게 되면 신앙의 메세지가 가정에 하나로 흐르게 되어 한 형상으로 변화되고 비록 아이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라 할지라도 가정에서 묻고 배울 수 있어 가정이 건축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성도들의 시선이 주님께만 있는 자리에서 혹은 성도의 뒤통수만 보는 예배의 구경에서 주님뿐만 아니라 성도들과도 눈 마주침으로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고 경직된 분위기도 사라지고 예배의 참여자로 바뀌어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한다고 하니 예배당에 놓여 있는 원탁의 모습이 아름답기 그지없다.



춘천에 온 지 일 년 남짓한 사역의 방향은 기본에 충실하자는 데 초점을 두었다고 한다. 목회의 기본인 전도를 서울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개척 후 지금까지 사모님과 함께 일주일에 이 삼 일을, 성도들과도 하루 이틀의 시간을 드려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딛 2:11-12)는 표어 아래 주일 저녁예배를 오후가 아닌 저녁예배를 드림으로 시류와 타협하지 않는 경건을 지향하게 하고, 시험에 들지 않고 의에 대하여 깨어 있는 기도를 하는 생활방식을 항상 갖게 함으로 하나님과 동역해 왔다고 한다. 그 열매로 이젠 열댓 명 남짓한 성도들이 원탁에 모여 성도들의 비전이 이루어 가고 있었다. 하늘샘교회 성도들의 비전은 1.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성도 2.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성도 3. 성령의 일하심이 함께하는 성도 4. 선교와 구제로 미래 지도자를 세우는 성도이다.

한재웅 목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주님 안에 거하게 된 것도 춘천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과 같이 강권적이다. 그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 자라 제 길을 갔지만, 고등학교를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미션스쿨인 경신고등학교에 입학하여 만난 1학년 담임선생님(김극륜 선생님)이 시작부터 반 학생들 모두에게 교회에 다닐 것을 권유하고 주일날 교회에 갔다 왔다는 증거로 교회 주보를 가지고 오라고 하였고, 선생님은 월요일 조회시간에 점검하여 거역할 경우에는 조례와 담임선생님의 수업시간에도 혼났다고 한다. 이 일이 집 안에 알려지고 어머니와 가족은 학교는 다녀야 하니 졸업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게 하자는 합의로 왕십리교회에 첫발을 딛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수양회 때 주님은 그런 그를 찾아와 주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심으로 가족과 자신의 궁리와는 상관없이 어그러지게 하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또한, 주님을 믿는 기쁨 속에서 생활할 무렵 고등부 지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곤 할 때마다 생각 속에서 자기가 설교하는 모습이 오히려 보여 외면하곤 하였지만, 군 제대 후 사업을 하다 얻은 불면증으로 주님을 찾던 중 결국 그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었다고 한다.

춘천에서도 이 길을 가면서 목회자들의 모임인 춘천에벤에셀의 동역자들과 주님의 나라와 뜻을 성취하는데 연합을 하는 목회자이다.

하늘샘교회와 한재웅목사 그리고 춘천의 교회들이 만들어 가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다.

이영규 기자 / abba-father@hanmail.net

춘천희망 복지센터



▲ 황관중 목사(춘천희망복지센터)

1. 교회를 개척하여 섬기면서 춘천희망센터 사역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다면?

춘천 출신으로 학교 다닐 때부터 성시화에 대한 비전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인 춘천에서 교회를 개척하리는 마음을 갖고 2009년 4월에 교회(예수님의 길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여 사역하면서 처음에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 비중을 두고 사역을 했는데, 사역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춘천에 크리스천의 분포가 10명 중에 2.5명이 청년들인데 비해서, 노인들은 10명 중에 1명꼴로 생각보다 신앙을 가진 분들의 비중이 낮다는 알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이나 청년들에 대한 사역도 귀중하지만 인생을 얼마 남겨 좋지 않은 노인들에 사역이 시급한 것에 비해서 사역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부흥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어르신들을 잘 모시면 다음 세대의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배우면서 잘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어른들을 제대로 모시지 않으면 결국 자업자득하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이 사역을 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이고요, 또 다른 계기는 요양 보호사의 처우개선 문제가 열악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창기만 하더라도 이 사역이 자리를 잡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함께 힘을 모우지 않으면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없기 때문에 노인종합복지기관으로 춘천희망복지센터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2. 춘천희망복지센터는 어떤 사역은 주로 어떤 사역을 하나요?

춘천희망복지센터는 강원희망노장아다봉사연합 안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강원희망노장아다봉사연합은 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다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에서 역할을 감당하고자 만든 강원도인가 비영리단체입니다. 여기에 춘천희망복지센터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춘천희

망복지센터는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노인성 질환으로 고생하시며 생활이 불편하여 도움이 필요로 하는 분들을 찾아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및 간호, 주야간 보호센터, 노인들을 돌보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합니다. 가사간병 지원도 하구요. 더 나아가서 요양 보호사 교육도 주야간으로 합니다. 요양 보호사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실 강원도는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춘천도 노인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별히 춘천은 노인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5년째 1위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좋고, 대학 병원이 가까이에 있다 보니 노인 유입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춘천희망복지센터를 하면서 느끼시는 점은 있다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앙생활은 마지막에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젊어서 잘 믿었는데 나이 먹고 늙어서 신앙을 제대 갖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잘못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황혼의 시기에, 하나님 품에 가기 전에 마지막에 잘 믿어야 하는데 대부분 늙고 병들면 젊어서 가졌던 신앙도 유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는 노인들을 각별히 도와야 합니다. 아니 선교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의지할 곳이 없고, 힘도 없어서 교회에 다니기도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그들에 대한 돌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믿어야 진짜 믿음인데, 이때에 믿음이 잘못되면 젊어서 믿은 것도 소용이 없지요.

노인복지는 행정기관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아직 많습니다. 시내에서는 수입 사업이 되어 어느 정도 접근하고 있는 편이지만, 외곽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면단위의 노인들은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도 외곽으로 가달라고 요청이 오지만 손이 모자라는 편입니다. 저는 교회가 노인들을 잘 모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이 대우 받은 교회가 되어야 젊은 사람들도 보고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어른을 공경하게 됩니다. 요즘은 교회들이 아이들과 청년들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노인들이 살아야 한국교회가 산다고 봅니다.

4. 교회가 노인들에 대해서 선교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각 교회에서 노인복지 사업에 뛰어 들어야 합니다. 육신이 건강할 때는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노인이 되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살도록 돌봐드려야 합니다. 서면에 소망교회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듯이 노인복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노인들이 쉴 수 있는 거점을 확보하고 섬기면서 전도해야 합니다. 저는 특별히 면단위

의 교회들이 노인복지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노인요양은 수익 사업도 되어 교회가 노인들을 돌보면서 자립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좋은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들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노인들을 돌볼 수 있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효(孝)가 서면 교회 부흥은 저절로 됩니다. 목사님들도 효를 잘 실천하는 분들을 보면 교회도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효는 사람이 갖고 있는 성품의 테스트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총체적으로 접근을 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농촌 마을은 동네 전체가 노인들이 잘 살 수 있는 마을로 만들어야 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어린이, 노인까지 복지 사업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어르신들을 전도하고 신앙을 유지하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농촌 교회마다 교인이 줄어든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젊은 층이 줄어들고 있지 노인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노인들에 초점을 맞추어 사역을 하면 얼마든지 교회도 부흥하게 됩니다.

저는 노인에게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가 사회복지에 눈을 뜨고 접근을 해야 합니다. 노인들을 위한 사업이나 마을 기업을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구요. 노인들이 교회를 다니면 용돈도 벌고 먹고 살 수 있다는 의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노인들을 섬기는 문화를 회복해야 다시 한국 교회에 부흥이 온다고 봅니다. 노인세대가 잘 공경을 받아야 자녀세대가 복을 받는 것은 성경의 이치입니다. 성시화도 이런 사역을 하면 효과가 좋을 것입니다. 자립이 어려운 면단위는 목회자들은 생계도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자립이 어렵기 때문에 큰 교회에서 6개월이나 1년 정도 지원을 해 주면 충분히 자립하게 됩니다. 저도 처음에 혼자서 하려고 하니 2년 동안 대리 운전을 했습니다.

5. 교회가 노인들을 영적으로도, 사회복지 차원에서 돌봐드려야 한다는 말씀이 시기적절한 선교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 좀 더 말씀을 나눠주실 것이 있으시다면?

앞으로 목회를 할 때에 사회적 지원센터를 업고 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교회가 예배당 공간을 지역아동센터처럼 노인요양센터도 만들어 주중에 활용해야 합니다. 요양복지사는 2달 정도 교육을 받으면 시간당 7,620원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습니다. 복지사는 2년 과정으로 공부를 하면 자격을 취득하여 센터를 차릴 수 있습니다. 한 교회가 적어도 2개 리(里)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면단위에서는 20여명, 시내는 40여명 정도면 충분히 자립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간병사업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게 하는 데는 최고입니다. 이렇게 돈을 받으면서 사역도 할 수 있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희 춘천희망센터에 130여명이 함께 일하는데 30%가 크리스천입니다. 저는 센터장이라 부르지 말고 목사님이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도하는 기회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교회들이 노인들을 위한 사역에 더 많이 뛰어들기 바랍니다.

이병철 기자 / kokkos21@gmail.com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신동엽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네가 본 건, 먹구름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네가 본 건, 지붕 덮은 쇠항아리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닦아라, 사람들아
네 마음속 구름
찢어라, 사람들아
네 머리 덮은 쇠항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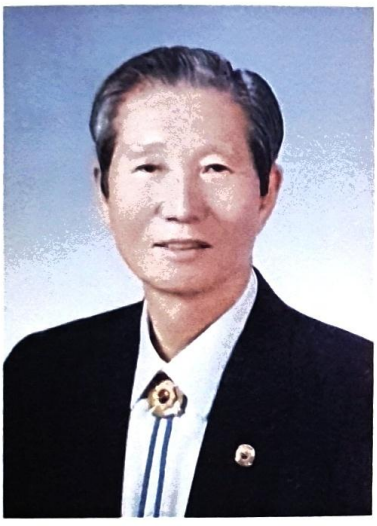
아침 저녁
네 마음속 구름을 닦고
티없이 맑은 영혼의 하늘
볼 수 있는 사람은
외경(畏敬)을
알리라

아침 저녁
네 머리 위 쇠항아리 찢고
티없이 맑은 구원의 하늘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연민을 알리라.
차마 삼가서
발걸음도 조심
마음 모아리며

서럽게
아 엄숙한 세상을
서럽게
눈물 흘려
살아가리라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자락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춘천성시화 운동의 부흥 발전과 소망



최초의 평생후원자
이 범 찬 장로
(전 국가정보대학원장)

2015 춘천성시선교대회는 1996년 제1회 대회 "성시화 주간"행사 이후, 실로 19년 만에 값지고 보람 있게 치러진 대회였음에 감사합니다. 이번 대회 성시포럼의 발제 중 한 과제인 "성시화 기금 마련"에 관한 토론을 하면서, 춘천성시화운동 창립 당시의 사무실 운영경비와 성시신문 발간 소요경비 충당을 위해 후원자를 모집하는 과정이 생각났고,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96년 당시 춘천성시화운동을 위하여 성시후원자 평생회원으로 가입하신 국가안전기획부 강원지부장이셨던 이범찬장로님(현 서울반포장로교회 은퇴장로)입니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에서 그동안 "성시3천 후원자 찾기"를 위해 연합집회, 교회순회예배 등을 통하여 후원회원을 모집해왔지만, 지금도 여전히 사무실 운영과 성시매거진 발간 기본경비 충당 등, 성시화운동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어서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96년 당시 최초의 평생후원자로 참여하신 이범찬장로님의 후원금은 당시 많은 성시지도자와 성시요원들에게 참여 의욕을 갖게 하고, 뜻있는 후원자 찾기에 촉매제 역할을 한 것처럼, 이 시대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후원자가 있기를 하는 바람으로 최초의 "평생 후원자"이신 이범찬장로님의 [춘천성시화운동의 부흥 발전과 소망]의 글을 소개하면서 이 도시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장로님의 소망처럼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자존 자율하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어 43년 동안 홀로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하시고, 임마누엘과 여호와이레와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도우시어 춘천에서 시작된 성시화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나아가서 해외까지 전도되고 있음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 또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1995년 11월 9일에 춘천지부장으로 부임하여 하나님께서 이 곳에 보내주신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그 당시 춘천지방법 법원장으로 오신 양인평 장로님,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오신 전용태 장로님, 강원일보사 사

장 조남진 장로님을 만나게 되어 춘천시의 발전을 위해 목요일 저녁마다 함께 모여 기도를 쉼 없이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문이 퍼져서 김영명 장로, (故)이학규 장로, 이용규 장로들과 춘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기관장 및 사업가들이 참여하여 기도하던 중에 춘천성시화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뜨거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1996년 9월 19일에 시작된 춘천성시화운동본부로 기억합니다. 어찌되었던 성시화운동본부가 생기고 조충환 목사님이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어 열정을 다하여 성시신문도 발간하기 시작하였고, (故)이학규 교장선생님이 교육자선교회회장으로 부임하여 충성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시후원회원 모집이 있어 100만 원 이상 헌금하는 분들에게는 평생회원으로 모시도록 하였습니다. 이 부족한 종도 평생회원이 되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성시화운동의 크나큰 부흥을 소망하고 지금까지 쉼 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춘천성시화운동이 시작된 지 44년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성전건축을 위해 40년간 기도로 준비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지은 죄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고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7년간에 걸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건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47년 만에 거룩한 성전이 완공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춘천성시화도 시작된 지 44년 이후 3년이면 47년! 이 때야 말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이루어져서 대한민국 뿐 아니라 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불리웠던 평양이 성시화의 불길이 타올라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며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은 모르지만, 바라옵고 간구하기는 박근혜대통령의 임기 중에 이 한 반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다같이 뜨겁게 기도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 다음 글은 이범찬장로님께서 평생을 공직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해오시면서 언제나 마음 판에 새기고 실천 노력하셨으며, 하나님의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평생 지니고 기도하시는 내용 입니다.

위국충절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고)
보국안민 (나라 일을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며)
원평비전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망전필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기가 온다)

김영명 기자 / kym_5771@naver.com

그리스도인의 가치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사랑나눔교회
박찬규목사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만 산다면 이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아가면서 처하는 환경이나 상황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치가 대부분 부정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면 손해 볼 것 같고, 자신의 삶도 피곤해지며,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 배운 기본적인 삶의 가치는 머릿속에서만 머물러 있게 되고, 행동으로는 옮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도 똑같이 적용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릴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할 때도 '우리가 사는 목적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 생활을 거듭할수록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는 머릿속에 머문 구호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이중도덕의 문제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리스도의 가치를 멋들어지게 나누지만 세상 공동체에서는 세상의 가치를 나눕니다.

이러한 이중도덕의 모습을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올라온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함의 축복을 받습니다.(창 13:2) 그들이 거하는 네게브지역은 아브라함과 롯의 일행이 함

게 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습니다.(6절)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는 서로 다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7절) 아브라함은 롯에게 서로 떠날 것을 제안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9절) 이때 롯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요단 지역을 바라보고 그곳을 선택하여 떠나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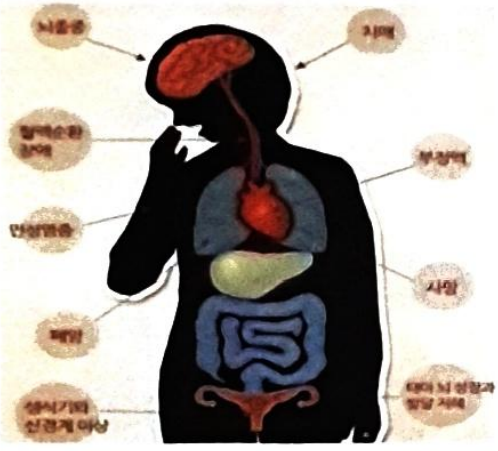
이 이야기 속에서 두 가지 가치를 발견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삶의 가치는 가족(친족)에 두고 있었습니다. 롯과 다투는 것보다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롯과의 관계를 우선시했습니다. 그것은 비록 열악한 환경 속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의 신앙 가치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치였습니다. 그에 반하여 롯은 삼촌 아브라함과의 관계보다는 눈에 보기에 좋은 요단 땅을 삶의 가치로 두고 선택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을 삶의 가치로 보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신앙 가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가치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는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던 신앙의 가치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세상의 가치와 타협해 버렸습니다. 사역자들조차도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가치를 포장한 자신의 야망을 추구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조차도 헷갈릴 정도로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가늠하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처음 하나님 앞에 섰던 때를 떠올려야합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 배웠던 도덕적 지침들을 기억해 내듯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일대일 관계를 기억하고 그 앞에 서야 합니다. 그 때 만났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다시 되새기는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요한1서 3장 18절)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참사랑내과
정형만 원장

미세먼지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복합한 성분을 가진 대기 중 부유 물질이다. 대기 중에 오랫동안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직경 10㎛ 이하의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가 연소될 때 또는 제조업 · 자동차 매연 등의 배출가스에서 나오며, 기관지를 거쳐 폐에 흡착되어 각종 폐질환을 유발하는 대기 오염물질이다.

대부분 자동차의 배기가스, 도로 주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에서 발생한다. 입자의 크기와 화학적 조성이 건강 영향을 결정한다. 미세먼지의 노출은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과 관련이 있으며 사망률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크기가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작은 먼지 입자들은 폐와 혈중으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큰 위협이 된다. 한편 먼지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총먼지,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보다 작고, 2.5마이크로미터보다 큰 입자를 미세먼지(PM 10)라고 부르며 주로 도로변이나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한다.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입자(PM 2.5)는 초미세먼지라고 하며 담배 연기나 연료의 연소 시에 생성된다. 입자의 성분이 인체의 독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주로 연소 입자인 탄소, 유기탄화수소, 질산염, 황산염, 유해금속 성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크기가 매우 작아서 코와 기도를 거쳐 기도 깊숙한 폐포(alveoli)에 도달할 수 있다. 특히 직경 2.5㎛ 이하의 초미세먼지(PM 2.5 환경기준 설정연구, 국립환경과학원, 2006) 폐포를 직접 통과해서 혈액을 통해 전신적인 순환을 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미세먼지 중 일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미세먼지는 질산염(NO_3^-), 암모늄(NH_4^+), 황산염(SO_4^{2-}) 등의 이온 성분과 탄소화합물(carbon compounds), 금속(elements) 화합물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먼지 중 디젤에서 배출되는 BC(black carbon)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 장기간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감기, 천식,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질환은 물론 심혈관 질환, 피부질환, 안구질환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 있

다. 미세먼지는 우리 몸으로 어떻게 들어오는가? 코와 입에서 온몸으로, 그리고 피부에서 혈관으로, 그리고 온 몸 속으로 퍼진다. 지름이 0.01㎜ 안팎인 미세먼지는 지름이 2~5배인 모공을 손쉽게 통과한다.

중국발 미세먼지

가속화되고 있는 중국의 산업화로 인한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오염물질의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다. 한 · 중 · 일의 환경과학원이 2000년대 이후부터 10년간 함께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오염물질의 30~50%가 중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잠정결론 내려졌다. 중국은 석탄 의존도가 70%가량(중국통계연보, 2011)으로, 특히 석탄연료 사용이 증가하는 겨울철에 스모그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것이 서풍 또는 북서풍계열의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로 날아와 우리나라에서 배출된 오염물질과 함께 혼합 · 축적되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스모그는 연기(smoke)와 안개(fog)의 합성어로, 안개와 미세먼지 · 황산화물 ·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이 혼합되어 안개가 낀 것처럼 대기가 뿌옇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황사와의 차이점

황사나 스모그 둘 다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끼쳐, 황사나 스모그의 고농도 발생 시 시정(visibility)을 악화시켜 대기가 뿌옇게 보이고, 호흡기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황사가 중국 몽골의 건조지대에서 강한 바람에 의해 높은 대기로 불어 올라간 흙먼지가 바람을 타고 이동해 지상으로 떨어지는 자연현상인 반면, 고농도의 미세먼지 발생은 자동차 · 공장 · 가정 등에서 사용하는 화석연료 사용으로 배출된 인위적 오염물질이 주요 원인이 된다.

미세먼지로 인한 몸의 증상은?

급성 노출 시에는 기도의 자극으로 인한 기침과 호흡곤란이 발생하며, 천식이 악화되고 부정맥이 발생한다. 만성 노출 시에는 폐기능이 감소하고 만성 기관지염이 증가하고 사망률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심장이나 폐질환자, 아이와 노인, 임산부는 미세먼지 노출에 의한 영향이 더 크며, 심지어 건강한 성인이어도 높은 농도에 노출되면 일시적으로 이런 증상들을 경험하게 된다.

미세먼지 예방법은?

①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학문적, 정책적, 외교적의 노력이 필요하다.

②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에는 호흡기나 심혈관 질환자, 아이와 노인, 임산부는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③ 건강한 성인은 과격한 실외 활동을 최소화 것이 좋다.

④ 대개 도로변이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기 때문에 도로변에서 운동하지 않도록 한다.

⑤ 실외 활동 시에 황사마스크를 착용하고, 불가피한 외출 후에는 코와 손을 잘 씻는 것이 좋다.

⑥ 창문을 열어 두면 외부에서 유입된 미세먼지로 실내의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창문을 닫아야 한다. 환기를 한 후에는 바닥을 자주 닦아주는 것이 좋다. 미세먼지 중금속이 바닥으로 가라앉기 때문이다.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해 진공청소기를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미세먼지 농도를 높일 수 있으니 삼간다.

⑦ 에어필터나 공기청정기가 도움이 될 수 있다.

⑧ 실내에서 흡연을 하거나 촛불을 켜는 것은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것이므로 피해야 한다.





순서를 알면 주변이 깨끗해진다

2 제일요리학원



한식조리사 자격증 실기 시험시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먼저 모든 재료의 깨끗한 손질이다. 특히 생선으로 요리를 하게 되는 경우 대부분 생선의 입을 먼저 자르거나 아니면 머리를 통째로 자르고 난 뒤 옆 지느러미, 등지느러미, 가슴지느러미 등을 자르고 난 다음 비늘을 벗겨내는 손질을 해야 한다. 이 같은 과정을 달리 생각하면 예배를 드릴 때의 첫 번째 마음가짐은 먼저 세상의 모든 우상에 관한 자랑을 단속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필자가 그린 지난 10월호 본지 만평에서 시사했듯이 교회 내에서는 절대 나이자랑, 교회직분자랑, 세상지위 자랑 등을 늘어놓지 말자는, 다시 말해서 주님의 몸 된 제단 앞에서는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고 찬양하며 예배를 드려야한다.)

이 같은 기초과정을 해놓고 조리를 시작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도마 주변도 깨끗해진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우왕좌왕하며 도마주변도 지저분하고 재료가 담긴 그릇도 어수선하며 특히 쓸데없이 조리시간이 낭비되어 제 시간에 요리를 완성하지 못해 자격증 시험에 실격 당할 수 있다. 이 말을 달리 또 말하자면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성도의 경우 나이, 직위 상관없이 초신자라 주일학교처럼 처음부터 체계적인 성경공부를 통해서 성경의 바르고 정확한 뜻을 알고 믿음 생활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기복 신앙이 될 수 있으며 신천지와도 같은 여러 사이비 종교에 귀가 솔깃하여 자칫 잘못하면 지옥행 열차를 탈 수 있다. (질문: 예수님이 길을 걷다가 서로 다투는 두 사람을 보셨다. 한 사람은 부자요, 한 사람은 가난한 자다. 그럼 과연 예수님은 어느 사람의 편을 들어주실까? 이러한 질문에 신앙인이라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문도 채 끝나기 전에 선뜻 가난한 자라고 자신 있게 대답

을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무서운 오답이다. 그렇다고 정답이 부자는 더더욱 아니다. 정답은 바로.....)

필자도 초신자 시절(대학생) 성경공부를 하기위해 처음부터 그림이 대부분인 유치부용 예배 설교집으로 성경공부를 시작했고 이후에는 그 유명한 장편소설 '대지' 의 작가 펄벅 여사가 성서의 참다운 뜻을 무한한 상상력과 통찰력을 발휘하여 한편의 작품으로 승화시킨 '성서이야기' 책을 표지가 다 닳도록 많이 읽었다. 이후 1995년 중반 그 당시로선 엄청 비싼 그랜드 종합주석 16권을 할부로 구입해서 목사님의 설교내용을 참고하면서 혹여 내 아들이 목회자가 되면 물려줄 욕심으로 깨끗하게 보관하고 있던 중 목회자의 길이 엄청 고달프고 힘들다는 생각에 나중에 부르심을 받더라도 현재는 목회자가 되느니 차라리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더 빠르다는 생각이 들어 기도 제목을 내려놓았다.

필자는 요리학원(저녁반)을 두 달 넘게 다니는 동안 때론 바쁘고 힘든 직장 업무 때문에 혹은 이웃의 애경사로 인해 부득이 요리학원을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럴 때 마다 요리지도 선생님의 관심어린 격려 문자와 함께 결석으로 인해 당일 배우지 못한 요리를 꼼꼼하게 체크하여 다음 기회에 배울 수 있게 배려도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했었다.(학원 이름답게 제일 좋은 요리학원이라는 생각인 든다) 하지만 이에 반해 교회 내에서 장기간 교우가 출석을 못(안)하면 걱정되고 염려스런 마음에 전화 혹은 문자라도 안부를 물으면 좋으련만 요즘은 같은 교우라도 그저 보거나 안 보고거나 상관없는 사람처럼 취급하고 취급을 당하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란 하나님의 지상목표 말씀을 교회 내에서도 못 지키니 정말 안타깝고 서글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나를 알고 싶으면 내 주변을 살펴보란 말이 있다. 결론적으로 주님 보시기에 내 주변이 깨끗해야 한다. 사실 필자도 변명이지만 워낙 오지랖이 넓어 퇴근시간 이후에 이사람 저사람 바쁘게 만나고 다니는 경우가 있어 종종 있어 가끔씩은 아까운 시간과 물질을 사용한 것에 대해 많은 후회를 하며 이와 함께 회개기도를 드릴 때가 많다. 그러던 중 요리학원을 요리보고 조리보고 다니는 동안 요리와 관련하여 주님이 감춰두신 오묘한 뜻을 발견하여 은혜를 많이 받았고 이렇게 글을 쓰기까지 했다.

2015년도 이제 두 달이 채 남았다.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크리스천은 어딜 가 있어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발견하며 묵상하며 기도하며 찬양을 드리는 그런 은혜스런 날들만 꽉 차기를 기도드린다.

이관형 기자 / artpam@hanmail.net



지금까지 이 지면에 소개한 영화는 대개 기독교 영화로 신앙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지극히 제한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보편적으로 좋은 영화는 또한 얼마든지 우리 기독교의 메시지에 무관하지 않고 함께 고민하고 사고하는 기회가 되므로 작품성을 우선적으로 하되 지나친 편향을 보이거나 배타적 폐쇄적 메시지를 갖춘 함량미달의 작품은 물론 제외하고 우수한 기독교 영화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하고 공유할 수 있는 영화이면 얼마든지 소개하여 더욱 폭넓은 구별과 수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 본다. 하여 100호를 넘은 이번호부터 보다 다양한 영화적 주제와 표현의 영역으로 확대해도 되지 않을까 한다.

필자의 옛 교회 후배로 H권사가 있었다. 유난히 내면에 천착하며 남다른 독서욕에 문장력과 사고력을 갖춘 진지한 인품을 지녔다. 그런 그녀에게 영화는 그저 한가한 취향일 뿐이었을 것인데 어느 날 갑자기 영화 이야기를 건네는 거였다. 그 '모처럼의' 영화가 바로 〈이다 Ida〉인 것인데, 영화에 관한한 비교적 해박하다는 필자에게도 좀 생소한 작품이었다. 2013년, 즉 재작년 나왔으며 우리 시대에서는 드물게 흑백 극영화인 것이다. 어느 경로로 확보한 영화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 필자에게 요청하기도 하여 감상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 영화는 매우 독특하며 근원적인 인간성의 문제를 깊이 반성적으로 느끼게 하는 문제작이다. '지극히 평범한 악의 얼굴' 이라는 테마를 다룬 것으로서 어쩌면 섬뜩한 성찰을 다룬 것이 아닌가 한다. 이 영화는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라는 유대인 철학자 겸 사회학자의 저서를 스크린으로 옮긴 것이다. 파벨 포리코브스키 감독.

나치독일의 SS(게슈타포)중령으로 홀로코스트를 최종적으로 책임졌던 아이히만(Adolf Otto Eichmann)은 종전과 함께 국제 전범으로 수배 중 아르헨티나로 도피하여 이름을 바꾸고 무려 15년간 숨어 지낸 끝에 1960년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에 체포되어 예루살렘에서 공개 재판을 받았다. 1961년 뉴요커의 특파원으로 아이히만 전범재판을 참관한 한나 아렌트는 "악마의 얼굴이 저렇게 평범할 줄 몰랐다"고 술회한다.

주인공 '안나' 는 고아로 수녀원에서 자랐는데 수녀가 되는 서원식을 맞이하기 직전, 유일한 혈육인 이모 '완다' 의 존재를 알게 되는데, 이모는 '안나' 가 유대인이며 본명은 '이다' 라는 뜻밖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혼란에 빠진다.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의 죽음에 대해 알고 싶어진 '이다' 와 이모 '완다' 는 잠시 같이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의 가족사에 얽힌 숨겨진 비밀을 밝히기 위해 동행을 시작한다. 결국 이다의 부모를 살해한 사람을 만났을 때 너무도 당당하게 이다의 옛집 (현재 그 살인범이 살고 있는)의 소유권을 포기하면 부모님의 유골이 묻힌 곳을 알려주겠다고 말하는 장면에서 섬뜩한 충격을 만나게 된다. 바로 '악의 평범성' 이라는 것이다! 인간의 본성과 무지가 얼마나 커다란 비극을 초래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경고이자 깊은 성찰의 기회가 된다.



2013년 그 해 런던국제영화제에서 작품상을 수상, 폴리쉬필름페스티벌에서 여우주연상, 촬영상 석권과 동시에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토론토국제영화제, 바르샤바국제영화제 등 유수한 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비롯, 여우주연상 각본상 등 많은 상을 휩쓸고 2014년에는 유럽영화상의 실제 주요 부문 모두를 석권했으며, 뉴욕비평가협회상에서 최우수 외국영화상 등 그 질주를 이어 위대한 작품성에 버금가는 배우들의 놀라운 연기력까지 찬사를 받아 지금까지도 전 세계 모든 영화제를 휩쓸며 25년간 폴란드 영화 중 최고의 성공을 거둔 작품으로 큰 기대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춘배 기자 / beller@hanmail.net

① 춘천홀리클럽

홀리클럽 정기기도회

· 일시 : 매 짝수달 셋째주 화요일 오전 6:30 · 장소 : 지도 목사님 또은 임원교회 순회 시행 · 회비 : 헌금으로 진행

춘천홀리클럽 카페 많이 이용해주세요.

· 주소 : http://cafe.daum.net/ccholly 또는 다음카페 : 춘천홀리클럽

② 춘천성시합창단 운영

· 정기연습 : 매주 월요일 오후7시 · 장소 : 사랑감리교회 ☎ 010-2529-6193 (단무장 이기영)

③ 춘천성시무용단원 수시모집 (교회 방문수업 가능)

· 대상 : 몸찬양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기 원하는 분들을 모집합니다.

· 일시 : 일주일에 두번 오전반, 저녁반 수업합니다. · 장소 : 후평 2동 796-11번지

☎ 010-9333-8753 (단장 유은경권사) ☎ 010-3180-5330 (지도 김귀선권사)

① 헐몬산악회(기독교동아리)회원 모집

· 일시 : 매주 토요일 100대 명산 및 춘천분지 종주 산행 · 주소 : cafe.daum.net/ccjmm

☎ 010-8798-8782 (정학수 장로)

② 교역자 축구선교회 회원모집 포이맨

· 일시 :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 장소 : 공지천 잔디구장 ☎ 010-5372-6200 (자용찬 목사)

③ 목회자 족구회원모집

· 일시 : 월~토요일 매일 오전 6시 · 장소 : 공지천 족구장 ☎ 011-361-1995

④ 한마음 조기탁구회

· 일시 : 월~토 매일 아침 630부터 · 장소 : 탁구세상(강원대 후문앞 언덕) · 회비 : 월 4만원

☎ 010-3375-4323

⑤ 춘천쏠리데오 사모합창단 수시모집

· 대상 : 목회자 사모 · 장소 : 예강교회 · 자격 : 연령제한 없음, 찬양을 사모하는 분

☎ 010-2492-4316 (회장) ☎ 010-6378-2261 (지휘자)

⑥ 춘천시 목회자 색소폰 동아리 모집

· 대상 : 춘천시내에 계시는 목회자, 초보자 환영, 무료 · 일시 : 매주 월 오후2시~5시 · 장소 : 나눔교회

☎ 010-5521-3779

⑦ 하모니카 찬양 연주반 모집

· 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3시 · 장소 : 춘천드림성결교회(동광길7) · 회비 : 2만원(교재 및 간식비 포함)

☎ 010-3466-5835 (백승환목사)

⑧ 교회음악 (찬양대지휘)를 배우고 익하는 스터디 모임

· 시간 : 매주 월요일 오전10시, 오후7시 · 장소 : 봉의고등학교 정문 앞 봄내 피아노1층(후석로 150번길 17-1)

☎ 010-6375-8874

① 행복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목욕(춘천지역기관설치 제1호), 65세 이상 치매,중풍,장애등 요양보호사의 돌봄이 필요하신 분

☎ 011-366-4972, 033-255-2191 (춘천제일감리교회 탁광희 장로)

② 장수방문요양센터(기관)

*장기요양 인정 신청 제출, 등급판정받기 원하시는 분 ☎ 019-9138-4452, 033-251-4452

③ 춘천 호스피스

사랑과 믿음으로 말기암 환자를 돌봐드립니다. · 대상 : 말기암으로 진단 받은 환자 ☎ 033-263-5455 (입원상담)

④ 청소년 인터넷 중독 무료상담 및 심리치료

· 강사 : 김옥련(인터넷중동 전문상담사, 기독교상담 석사과정) · 장소 : 춘천샘솟는장로교회 부설 119상담센터

☎ 070-4383-4720, 010-7567-5012

⑤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 모집

따뜻한 관심으로 함께 변화를 이끌어 갈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 일시 : 월~금 (주1회) 9:00-14:00 시간 변동 가능 · 장소 :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 내용 : 식당보조 및 배식, 설거지,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

· 인원 : 00명 · 장소 : 일정 및 시간 협의 가능

☎ 254-7244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안한나, 이의경 사회복지사)

① 오순절기도원 집회안내

· 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2시 정기집회, 매월 마지막주 월밤~목밤까지 외부강사초청 집회

☎ 033-243-5993/010-8263-0190

② 제29회 청소년 희망날개 장학금 마련과 춘천성시화를 위한 춘천연합찬양축제

지역사회 내 도움이 필요한 중, 고등학생의 장학금 지원을 위해 교회 성가대 및 찬양대가 참여하여 축제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 일시 : 2015년 10월 31일(토) 오후6시~9시

· 장소 : 춘천문화예술회관

· 강사 : 김상민 간사(전 제주열방SBS학교장,현 SBS센터 간사)

· 대상 : 춘천지역주민 누구나

☎ ☎254-7244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이의경 사회복지사)

③ 사랑으로 말기암 환우를 돌보는 제17기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 일시 : 2015년 10월 20일(화) - 11월 17일(화) 매주 화요일(5주간) (오후1:00 - 오후5:00)

· 대상 : 봉사를 원하시거나 관심있는 분

· 접수 : 전화 사전접수 (당일 현장 접수가능)

· 주제 :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롬 8:38-39절)"

· 장소 : 소양제일교회 (퇴계동 중앙하이츠3차 옆) · 교육비 : 3만원 (교재 다과비 포함)

☎ 033-263-5454 / 010-9859-3434 (춘천호스피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소식

세계성시화운동은 기도로 시작 된다 — 271회를 맞이한 "성시월요조찬기도회"

매주 월요일 오전 6시30분에 열리는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성시월요조찬기도회"가 지난 10월19일 제271회를 맞이하는 가운데 서울 순복음강남교회(담임 최명우 목사)에서 열렸다. 지난달 베를린국제성시화대회를 마치고 일시 귀국한 독일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김현배 목사는 "성시화의 영적원리"라는 주제의 설교를 통해 "72년 춘천에서 시작한 성시화운동이 40년 만인 2012년에 유럽성시화운동이 조직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며, 그러나 한국도 유럽처럼 이슬람의 침투와 동성애 합법화 논란 등, 한국교회에도 어려운 상황이 놓여있다"는 소식을 듣고, 세계적인 예술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 베를린이 동성애의 메카가 되었다면서 성시화운동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기도,"기도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세계성시화운동을 통해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가 개혁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일이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민족복음화의 꿈 기념비" 제막 되다.

한국대학생선교회(CCC)는 지난 10월 2일 서울 종로구 백석동 CCC본부에서 유성 김준곤 목사 6주기 추모식 및 민족복음화의 꿈 기념비 제막식을 가졌다. 기념비문에는 김 목사가 생전에 주창했던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는 민족복음화의 철학이 담겨져 있다. 기념비 제작은 주수일 진새골가정사역원장, 두상달 한국기독실업인회 중앙회장, 전용태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총재가 함께 후원했다. 이 날 제막된 기념비문은 강원대학교 CCC지도교수를 역임한 황재국 장로가 썼으며, 김준곤 목사의 묘소는 고인의 뜻에 따라 춘천에 있는 경춘공원 묘역에 자리하고 있다.

일본의 무목교회에 드디어 "멘토"가 시작되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에서는 지난 10월8일 일본 도쿄 가와구치 복음자유교회(도시히코 다카오 목사)에서 일본 바나바복음선교회(회장 정순엽 목사)관계자들과 한국 인천 논현주안장로교회 유헌형 목사님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내년 1월 도쿄에서 전도 양육세미나를 갖기로 했는데, 일본 바나바복음선교회에서 일본 목회자와 선교사를 대상으로 사전에 설명회를 가지고 참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와 일본 바나바복음선교회는 지난 달 1일 서울 명성교회에서 한.일 선교 협약을 맺은 후, 일본의 8천여 교회중 목회자가 없는 무목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우는 일에 협력하기로 한 후, 이 날 첫 만남이 성사된 것이다. 이 자리에는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가 함께했으며, 세계성시화운동을 시작한 우리 강원도 춘천에서도 뜻있는 교회들의 참여를 희망하며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하겠다고 하였다.

김영명 기자 / kym_5771@naver.com

10월 이야기

춘천크리스천기업 광고책자 패밀리BOOK 발간 및 패밀리APP 제작 계획



춘천성시화운동본부에서는 춘천크리스천기업 광고책자 패밀리BOOK을 발간되었다. 금번 책자는 크리스천들에게 춘천내 크리스천기업들을 광고해서 기업을 활용하게 하여 좋은 품질과 서비스를 받고, 기업들도 도움이 되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갖고 제작되었다. 이번 책자는 교회에서 제공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1호가 제작이 되었, 여러 사정으로 이번 호에 못 들어간 기업들을 추가해 차후 2호를 제작할 계획이다. 또한 패밀리BOOK만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패밀리APP도 제작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패밀리BOOK을 통해서 춘천 내 크리스천들간의 신뢰가 쌓이고 커뮤니티가 형성되며 이웃사랑까지 나아가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소망한다.

제46차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춘천모임

제46차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춘천모임이 12일(월) 저녁7시15분에 주향교회(이병철목사)에서 열렸다. 예수전도단의 찬양인도와 홍요셉목사(사랑의침례교회)의 사회, 석광훈장로(석사감리교회)의 대표기도가 있었고, 노숙자를 섬기는 탈북대학청년모임인 유니씨드 엄에스더대표와 청년들의 토크가 있었다. 엄에스더대표는 말씀을 통해 유니씨드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만난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사랑을 나누며 통일을 위한 씨앗이 되고픈 탈북대학청년들로 구성되었고, 한 달에 한 번씩 노숙자들을 섬기는 사랑 나눔을 통해 남한사회에 적응을 하고 있으며, 이 일을 통해 탈북자들에 대한 인식도 바꾸어 나가려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병철목사(주향교회)의 기도회 인도와 최생용(화천 풍익홈)원장의 특송, 김수복목사(거성교회)의 축도로 기도모임을 마쳤다. 제47차 11월 모임은 11월9일(월) 저녁7시에 이종한목사(제주 아름다운교회, 제주쥬빌리대표)께서 강사로 오시고, 12월 모임은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춘천모임 4주년 기념 12시간 기도회로 12월14일(월) 오전10시00~저녁10:00시까지 갖게 될 계획이다.

춘천기독교장로연합회 총회

춘천기독교장로연합회 총회가 27일(화) 오전11시에 중앙성결교회(유동선목사)에서 있었다. 1부예배는 남준섭장로(순복음춘천교회)의 사회와 강철주부회장(창대교회)의 대표기도, 조광용목사(중앙성결교회)의 설교로 예배를 드리고, 2부 총회에서는 남궁연장로(회장)의 사회로 사업과 결산보고가 있었고, 임원선출에는 강철주부회장이 2016년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제17기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제17기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이 소양제일성결교회(이주호목사)에서 춘천호스피스(박상운대표) 주최로 20일부터 11월16일까지 매주 화요일 5주간과정으로 진행된다. 춘천호스피스(부설) 완화의료센터는 고통 중에 있는 말기암 환우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자, 지난 1999년 10월 춘천에 설립된 기독교 호스피스 전문기관이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은 실질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다양한 과정으로 진행되며, 교육을 마치게 되면 춘천호스피스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하게 된다고 한다. 말기암 환우들을 복음으로 끝까지 섬기는 일은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이 일을 위해 준비된 많은 자원봉사자들 있어야 한다고 박상운대표께서 전했다.

(동산면 영서로 1428, 033-263-5454)



강원기독문인회 창립



강원기독문인회가 27일(화) 오전11시에 쟈스민에서 30여분이 모인 가운데 창립예배와 총회를 갖고 창립되었다. 강원기독문인회(김기태장로, 춘천중앙감리교회)는 문학을 사랑하는 이들의 모임으로 글쓰기 재능을 통해 선교와 전도에 기여하며 신앙을 바탕으로 한 문학 활동으로 자아 향상에 힘쓰는 친교와 사랑 나눔의 공동체로 창립하게 되었다. 강원기독문인회는 문학의 장르로 시, 시조, 수필, 소설, 희곡, 평론, 아동문학등이며, 세례교인 이상인 평신도 문학 애호인이며 초교파 기독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전했다.

춘천기독교장로연합회 총회

춘천기독교장로연합회 총회가 27일(화) 오전11시에 중앙성결교회(유동선목사)에서 있었다. 1부예배는 남준섭장로(순복음춘천교회)의 사회와 강철주부회장(창대교회)의 대표기도, 조광용목사(중앙성결교회)의 설교로 예배를 드리고, 2부 총회에서는 남궁연장로(회장)의 사회로 사업과 결산보고가 있었고, 임원선출에는 강철주부회장이 2016년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춘천교역자연합회와 춘천기독교연합회 정기총회

춘천교역자연합회와 춘천기독교연합회 정기총회가 16일(금) 오전10시와 오전11시에 거성침례교회(김수복목사)에서 있었다. 교역자연합회에서는 김종익회장(광명교회)의 사회와 박찬욱부회장(새순교회)의 기도로 총회를 시작하여 김용기서기(푸른샘교회)의 사업보고와 이승구회계(삼천동교회)의 재정보고가 있었고, 임원선출에는 박찬욱부회장이 2016년 춘천교역자연합회 회장에 선출되었다. 이어 진행된 춘천기독교연합회 정기총회에서는 1년을 지켜주심에 감사하는 1부 감사예배가 차덕수부회장(강원침례교회)의 사회와 2015년도 회장이신 지용찬목사(은혜교회)의 말씀선포가 "느보산을 오르며"라는 제목으로 있었고 박인관증경회장(광염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드리고, 2부에서는 지용찬회장(은혜교회)의 사회로 정기총회가 진행되었는데, 오의석총무(순복음조은교회)의 사업보고와 김항기회계(석사교회 장로)의 결산보고가 있었고, 임원선출에는 차덕수부회장이 2016 춘천기독교연합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이사회 조찬모임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이사회 조찬모임이 지난 19일(월) 오전7시 온누리교회에서 있었다. 금번 10월 첫 주 성시주간에 있었던 2015 춘천성시선교대회 평가회와 결산이 있었다. 집회에 초대된 강사들도 이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로 도전을 주었고, 기획한 대로 3세대가 함께 하는 집회가 되었는데, 특별히 다음세대들이 많이 참여하는 집회가 된 점도 아주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세대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데, 프로그램마다 각각의 메시지들이 전달되는 전체적으로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다는 평가였다. 그러나 교단별 행사로 춘천의 모든 교회가 함께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계획에서부터 10월 첫 주는 성시주간임이 미리 공지가 되어 교단별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통일광장기도회

통일광장기도회(김수목목사)가 26일(월) 저녁8시 석사교 하천무대에서 있었다. 금번 모임에는 이수형목사(순복음춘천교회)께서 말씀을 선포하였고, 통일을 위해 거룩한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 광고 및 취재 문의 전화: 033.256.1260 / 이메일: holycc1972@hanmail.net

가보자!!

홍천 한서기념관



한서 남궁 억의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민족 사랑의 〈무궁화정신〉이 깃들어 있는 곳,
기독교 성지 홍천 한서 기념관에 친구들과 함께,
손자손너들과 함께 자주 찾아 오시면,
우리들의 믿음을 뒤돌아보게 되며,
정신줄을 한 번씩 당겨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서교회 홍천 033)434-1069 / 한서기념관 홍천 033)430-4488

강원대학교병원 완화의료센터

말기암환자의 남은 삶을 의미있고 평안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전인적 서비스

담당자 연락처 : 033.258.9060~2

강원대학교병원 완화의료병동은?

- 말기암 환자의 암성통증 및 증상을 관리합니다.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자원봉사자 등 여러분야의 전문가들이 말기암 환자에게 필요한 돌봄을 제공합니다.

돌봄 유형

- 암성 통증, 신체적 증상 조절, 가족문제 상담 및 중재,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 (기념일 축하,소원들어주기), 영적상담과 종교적 돌봄, 심리적지지, 사별가족 지지모임

특별프로그램

- 다도, 미술, 원예, 스포츠마사지, 영화상영, 힐링노래방, 음악회, 가족지지모임



S. 라흐마니노프

SERGEI RACHMANINOV: (1873– 1943)

피아노협주곡 제2번 〈PIANO CONCERTO #2 C min., OP. 18 〉



다채로운 가을의 향연들로 더욱 풍요로운 가을이 떠나려 하고 벌써 초겨울의 쌀쌀함이 새벽공기를 가릅니다. 아직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들의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가지만 가뭄의 해갈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가을 밤의 정취에 맞게 작은 앙상블과 음악회 소식들이 귀를 즐겁게 합니다. 지난 봄, KBS FM 클래식방송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인들이 제일 사랑하는 클래식 음악부문에서 전제 1위를 차지한 작곡가가 바로 라흐마니노프였습니다. 그의 피아노 협주곡이 가장 사랑받는 곡이어서 러시아의 멜랑코리 음률이 본인 스스로 우울증을 극복했던 위대한 음악과 대비되어 아름다운 선률로써 우리의 정서에 파고 들었나 봅니다.

오래 전에 팝스타가 〈ALL BY MYSELF〉라는 발라드에 이 테마를 사용했던 젊은 우리 7080 시절 한밤의 라디오 프로그램의 단골음악이기도 했었지요.

그는 1873년 4월 1일에 러시아의 노브고로드에서 태어났고, 피아노의 신동소리를 들으며, 1885년에 모스크바 음악원에 입학했으며, 1891년에는 피아노 연주의 최고 영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피아노협주곡 제2번 c단조〉는 1901년, 교향시 「죽음의 섬」은 1907년에 초연되어 명성을 얻게 되었고, 1909년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에서 다므로시 지휘로 〈제3피아노협주곡〉을 연주하여 신선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1917년의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고, 스웨덴의 초청으로 온 가족이 떠난 후에, 다시는 고국 땅을 밟지 못하고, 미국으로 피신하여 1928년까지 살았으나 잠시 프랑스와 스위스에서 체류하며 여행하다가 1935년에 또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 1943년 3월 28일에 캘리포니아의 비벌리 힐즈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거의 모든 피아노 협주곡이 그렇듯이 제 2악장의 선률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제2악장은 아다지오 소스테누토〈ADAGIO SOSTENUTO〉, 느린 템포로, 현악기와 클라리넷, 호른과 파곳이 어울려 연주하는 반음계적 서주가 아주 몽환적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미국의 팝스타 에릭 ERIC CARMEN이 노래했던 〈ALL BY MYSELF〉의 오리지널 선률이지요. 드물게 직접 자신의 곡을 직접 연주하기도 했던 그의 음반을 만나면 더욱 피아니스트로서의 그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리히터나 아쉬케나지의 연주로 들으시거나 우리나라의 서혜경이나 손열음 자메도 연주한 앨범이 있을 것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밤의 정취와 잘 어울리는 그의 피아노 곡을 들으면서, 잠시 지난 한 해의 감사한 일들을 적어보시지요.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의 오곡백과처럼 주님의 축복이 넘치시길 소원하며,…

만천리에서 다니가 보내드린 음악이야기였습니다. (VOL.22). 샬롬!

김금찬 선교사 (JDM)

발전기금

사암교회 주향교회 순복음춘천교회

개인

강옥자 고순덕 곽해옥 권영일 권영자 권혁자 김관수 김기선 김기태 김남훈 김명자 김미경 김복심
김복자 김상욱 김성희 김숙희 김순덕 김연숙 김영관 김영명 김영태 김영희 김은주 김은철 김은희
김재홍 김정미 김정진 김정혜 김종은 김종익 김종찬 김지영 김춘화 김춘희 김향란 김현덕 김현정
김현철 김혜숙 김혜순 김화분 김희경 노수자 문현숙 민경원 민관식 민병임 박갑출 박금화 박노향
박동환 박만규 박명관 박명선 박민수 박순배 박완영 박찬옥 박필상 박혜성 배진철 배혜영 서묘석
서성진 성숙자 성화숙 손임순 송갑수 송영인 송항순 신미연 신옥자 심상만 심효선 안순연 안현주
어금옥 엄근혜 연송흠 연정화 염은희 오순자 오홍금 오흥수 원유미 원희정 유 근 유근창 유동열
유병준 유성현 유용균 유재란 유재형 유정순 윤성자 윤애자 윤은옥 이갑용 이광필 이규현 이명선
이명숙 이명순 이명화 이무식 이문희 이미경 이범찬 이병일 이상만 이세희 이순자 이승희 이연화
이영숙 이영애 이영준 이영진 이용숙 이윤규 이은경 이은옥 이종상 이주영 이진주 이태우 이형식
이혜숙 임덕수 임우선 임재철 장기영 장동자 장소영 장소희 장창순 전천일 정구영 정국환 정규시
정성옥 정은순 정은주 정은하 정인숙 정인순 정재인 정재현 정종승 정진호 정치웅 조경대 조기숙
조남진 조돈산 조명호 조소현 조수지 주명호 주신자 지윤성 차재옥 최귀숙 최선이 최옥순 최종대
최종덕 최종인 표복순 탁광희 한명수 한정연 한희현 함종현 허 봉 허인영 현재용 홍기택 홍순복
홍은숙 홍인숙 홍택기 황기현 황병호 황은주

춘천성시운동본부 후원에 동참해주시는 분들을 소개합니다.

〈 후원계좌 안내 〉

신협 131-005-937566
농협 172242-51-085114

교회

갈릴리교회 광염교회 거성교회 그말씀교회 나눔성결교회 나눔과섬김교회 늘사랑교회 동신교회
산천무지개교회 사랑의교회 사랑의침례교회 사암교회 석사교회 새춘천교회 소양제일교회
순복음열린교회 순복음제일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순복음하나교회 신북성결교회 신성교회
옥산포교회 온누리교회 우두감리교회 예담교회 예수촌교회 제일장로교회 주의숲교회 주향교회
축복교회 춘천광명교회 춘천그리스도의교회 춘천동부교회 춘천명성감리교회 춘천석사교회
춘천우리교회 춘천은혜교회 춘천일신장로교회 춘천제일감리교회 춘천침례교회 새춘천교회
한빛교회 한울섬김교회 화목교회 효자교회 후평제일교회

단체 및 기업

베드로선교센타 예수제자운동 행복재가요양기관 영광한의원 춘천와이신협 춘천YWCA
월드비전 아가갤러리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명단에 누락이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락해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강원지역 CAL-NET 포럼에 동역자님을 초대합니다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기 위해 오늘도 진액을 쏟으며 사역하시는 동역자 여러분을 돕기 위해
〈2015 강원지역 CAL-NET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우리 목회자들이 다시한번 광인 정신으로 무장함으로
강원지역 교회들을 보다 더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로 세우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훈련 목회철학을 가진 동역자들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기름과 회복의 원동력이 될 것을 믿습니다. 동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입 시	2015년 11월 9일 (월) 오전 10시 – 오후 3시 30분
장 소	하늘평안교회 (오생락 목사 시무)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11-6
강 의	한태수 목사 (은평교회, 칼넷 이사)
대 상	CAL 세미나를 수료한 강원지역 목회자, 제자훈련에 관심있는 강원지역 목회자
등 록 비	무료 (점심식사 및 도서 증정)
등록방법	2015년 11월 5일(목)까지 / 하늘평안교회 (033.262.8534)로 전화등록
문 의	하늘평안교회 033.262.8534
주최/주관	강원지역 CAL-NET / CAL-NET, 국제제자훈련원

CAL-NET은 지역교회 목회자들의 제자훈련 목회를 돕기 위해 1999년 1월에 열렸던 〈제1회 제자훈련 지도자 컨벤션〉에서 결성된 제자훈련 목회자 전국 네트워크입니다.

BENAMU TENNIS CLUB

배나무테니스

하늘평안교회 황성모 안수집사

상담환영
033.241.8844 / 010.3329.1165

레슨 회원 모집!

- 최고의 코치 책임레슨
- 개인 기량에 적합한 맞춤레슨
- 쿠폰으로 알뜰한 쿠폰레슨
- 함께해서 효과적인 단체레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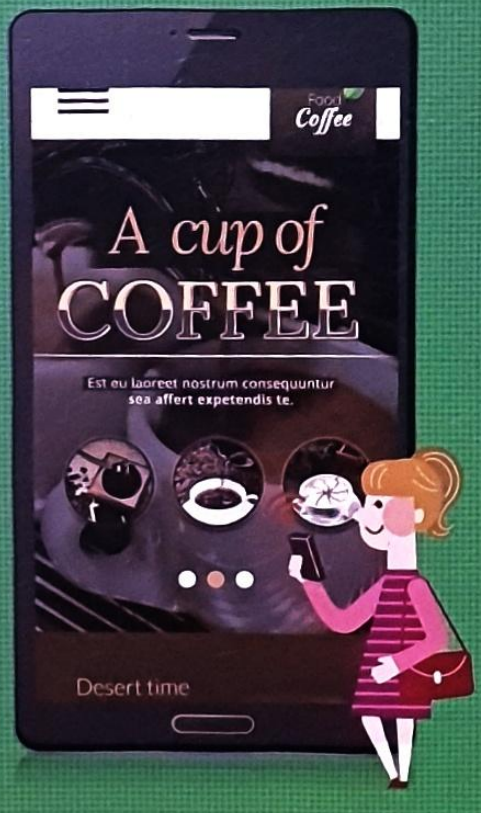
최고의 시설 : 클레이코트 6면, 최신라이트시설, 대형 주차장
다양한 편의시설 : 숲속휴식공간, 바비큐 등 야외파티시설, 클럽하우스, 샤워장, Shop

춘천 크리스천기업들의 광고책자

"패밀리BOOK"

Happy Together!

춘천성시화운동본부에서는 "2015 춘천성시선교대회"에 맞추어
춘천크리스천기업들의 광고책자 "패밀리BOOK"을 무료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패밀리BOOK"은 춘천크리스천들에게 크리스천기업들을 홍보하고,
좋은 품질과 서비스를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크리스천 기업들의 커뮤니티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패밀리APP" 신청하세요!

스마트시대에 맞추어 춘천크리스천기업들의 광고앱인
"패밀리APP"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패밀리APP"은 한 번 등록하게 되면
업데이트가 가능하며
지속적인 관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패밀리APP"은 크리스천기업들의 신청에 의해 제작되며,
춘천성시화운동본부에 월1만의 후원금 약정으로
제작, 관리됩니다.

문의 및 신청 033.256.1260 춘천시 금강로 120 춘천성시화운동본부